

12 December 2020
Vol.348

COVER STORY

경자년(庚子年)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송년무대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⑰

물인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부산의 중심에서 문화를 향유하라
리 갤러리

2021. 1

BCMF

제1회

부산클래식음악제

Busan Classic Music Festival

1.19 TUE - 1.30 S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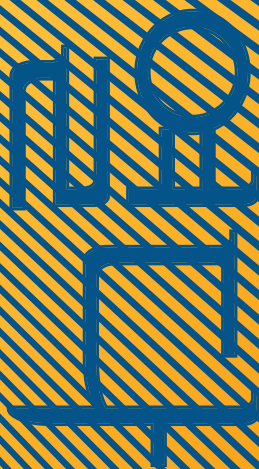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은빛샘홀

주최 | BCMF 부산클래식음악제조직위원회 | 부산일보사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Friendship Supporters | Dongsung SHINSEGAE BNK 부산은행 동성모터스 송월타올 · 송월우산 (주)와인테크놀로지

입장권 |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티켓오픈 12.21) 공연문의 | 080-519-2021

공존·시간을



2021.1



오충근
예술감독

19(화)

19:30 금빛누리홀

조성현·한수진 & BCMF오케스트라

조성현(Fl.) 한수진(Vn.)

BCMF오케스트라(리더 임재홍)

21(목)

19:30 은빛샘홀

하프시스 / BCMF목관5중주

황세희, 황리하(Hp.) /

조성현(Fl.) 노지연(Ob.) 백동훈(Cl.) 박준태(Bn.) 주홍진(Hn.)

23(토)

17:00 은빛샘홀

4첼로·송영훈과 친구들

송영훈, 심준호, 김대연, 이경준(Vc.)

26(화)

19:30 은빛샘홀

홍민수 & 김동현 듀오

홍민수(Pf.) 김동현(Vn.)

27(수)

19:30 은빛샘홀

부산피아노트리오 / 스트링아데소

권 준(Pf.) 백재진(Vn.) 이일세(Vc.) /

김주영, 이종은(Vn.) 김 규(Va.) 이호찬, 김민승(Vc.)

29(금)

19:30 은빛샘홀

EOPO양상블

백동훈(Cl.) 임재홍, 김동현(Vn.) 김규현(Va.) 김민지(Vc.) /

홍민수(Pf.) 김동현(Vn.) 김규현(Va.) 김민지(Vc.) 조용우(DB.)

30(토)

17:00 금빛누리홀

심준호 & 부산신포니에타

심준호(Vc.) & 부산신포니에타(리더 김영희)

MERRY Christmas **육중완밴드콘서트**

2020. 12. 19.(토) 1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최·주관 **해운대문화회관** 티켓 1층 VIP석 4만원, R석 3만원, B석(2층) 2만원 티켓예매 **YES24.COM** 해운대문화회관 예매사이트 문의 051-749-7651 관람연령 8세이상
 조기예매(11.26.까지) 누림회원·초·중·고·단체 20명이상(30%)/일반20% 티켓발인 누림회원·초·중·고·단체 20명이상(20%), 장애인(30%) *누림회원카드, 학생증, 장애인카드 확인 후 발부



송년콘서트

Happy New Year

HEAVEN SINGERS

헤븐 싱어즈 2020.12.30.(수)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베이스 / 권영기



바리톤 / 정승화



테너 / 홍지형

테너_홍지형 / 바리톤_정승화 / 베이스_권영기 / 피아니스트_전미리 / 퍼커션_이영훈 / 특별출연_유지철_신새봄

주최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해운대문화재단** 티켓 R석20,000원 / B석(2층)10,000원 **관람제한** 8세 이상

티켓예매 해운대문화회관 051) 749-7651 **조기예매(12.5.까지)** 누림회원·초·중·고·단체 20명이상 40% / 일반 30% 장애인, 국가유공자 할인반등 없음

티켓발인 누림회원·초·중·고·단체 20명이상 30%, 장애인 40%



2020 Crescend of GloVil

"비파야 수금아"

2002부산아시아안게임음악 작곡가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곡가 신영순의 야심작을 행진하고 있는 창작작품 시리즈를 합창·관현악의 축제로 개최되는 연주회, 작품집 출간 및 음반 출시



GloVil
Art Hall

신영순

- 글로벌예술총감독
- 음악학박사, 음악학석사, 국악학석사, 지휘디플롬
- 대한민국작곡상, 동아콩쿨 작곡상
- 국제문화대학교 교회음악대학 교수 및 학장
- 2002부산아시아안게임 공식문화축전 '허황후' 작곡자
- 2002부산아시아안게임 체조경기진행음악 작곡자
- 2003 미국매디슨음대 현대음악 페스티벌 초청작곡가(주강사)
- 찬송가 581장 작곡자
- 2005 글로벌아트홀 건립
- 국가상훈인물대전 '현대사의 주역들'에 수록
-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역임(25년)
- 경성대, 동아대, 고신대, 신라대, 계명대, 영남대 외래교수 역임
- 부산예고, 브니엘예고 감사 역임

일 시 | 2020.12.26 오후7시

장 소 | 글로벌아트홀

회 원 권 | 50,000원

구 매 처 | www.glovil.org

문 의 | 051·505·5995

(회원권 구매시 합창곡집/독창곡집/관현악악보집 맥1 증정)

출연

작곡&지휘: 신영순

악 장 : 백재진

음악감독 : 백샤론

관현악 : **GloVil Chamber Orchestra**

조무종 여주현 손주연 정성우 정서은 장예지 박신영
백동훈 김숙연 김영민 Dmitry Lokalenkov 이가은

합창단 : **Crescendo of GloVil Choir**

권혜술 임규비 김수현 김지윤 채민희 왕원석 권주은
노연수 김유나 신지웅 함지연 서진원 이락교 정루디아
이건호 김상원 김혜영 강태영 강태경 이성화 하보배

소 생 Regen

2020.12.04 (금) PM 20:00
12.05 (토) PM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안무 이정윤
- 음악 정재일, 이아람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www.bscc.or.kr

티켓 R석 20,000원 S석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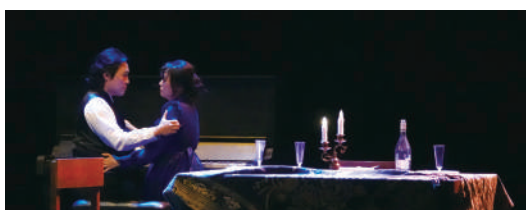
문의 051-607-6000



CONTENTS

12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December 2020 Vol.348

2020년 12월호 통권 348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0년 11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08 Cover Story

Adieu 2020, Welcome 2021
경자년(庚子年)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송년무대

16 Column

밥의 사회학

18 Poem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⑩
물앞

20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부산의 중심에서 문화를 향유하라
'리 갤러리'

22 Academy Class

향수, 그 향기의 역사

25 Preview

28 Issu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30 Review

34 Program Guide

50 BSCC News

52 Column

극장장의 손편지 ②

54 New Book

SUN	MON	TUE	W
		1	2
6	7	8	9
13	14	15	16
20	21	22	23
27	28	29	30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p>2</p> <p>특별공연 '얼씨구' 10:00 (3110)</p>	<p>3</p>	<p>4</p> <p>◆ 부산시립무용단 제82회 정기공연 및 이정운 예술감독 취임공연 '소생(Regen)' 20:00 대 2만원·1만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해설과 함께하는 박보경 피아노 독주회 19:30 첼 초대/무지카기획(010-2110-2106)</p>	<p>5</p> <p>◆ 부산시립무용단 제82회 정기공연 및 이정운 예술감독 취임공연 '소생(Regen)' 17:00 대 2만원·1만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세계 민요와 가곡의 향연 17:00 중 3만원·2만원/아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 김유빈 피아노 독주회 '그 겨울의 낭만' 17:00 첼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9</p> <p>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교향악단(607-3111~3) relude' 19:30 코레아(442-1941)</p>	<p>1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1234회 MBC 목요일음악회 '부산성악가협회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19:30 첼 1만원·5천원 부산성악가협회(010-7767-4390)</p>	<p>11</p> <p>2020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클래식&크로스오버'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 (재)부산문화회관 공연장 예술진로교육 프로그램 '스쿨 온 스테이지' (* 중·고등학교 단체관람) 10:00, 14:0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73) (재)부산문화회관 2020년도 문화예술아카데미 발표회 19:30 첼 (재)부산문화회관(607-6071~5)</p>	<p>12</p> <p>심하정 피아노 독주회 17:00 첼 초대/심하정(010-3284-9428)</p>
<p>6</p> <p>사제동행 프로젝트 3 (850-3261) 공연 '바리톤 평운 리사이틀' (0-4136-1410)</p>	<p>17</p> <p>◆ 부산시립합창단 제181회 정기연주회 '2020 송년 힐링콘서트' 19:3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5~6)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현악사중주 전국 연주 시리즈 VI 'Happy Birthday! Beethoven' 19:30 첼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18</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0회 정기연주회 '부산MBC와 함께하는 부산시향의 베토벤 플러스'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20 제 6대광역시 및 제주 특별자치도 교류음악회 19:30 첼 (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19</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 Unplugged' 19:00 대 전석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7) 베이스 김태형 독창회 '시, 사랑, 나의 노래' 19:30 첼 초대/김태형(010-2339-1973)</p>
<p>13</p> <p>제208회 정기연주회 (재)송년음악회' 20:00 국악관현악단(607-3124) 30 (10-9907-8031)</p>	<p>24</p> <p>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제25회 정기연주회 19:30 대 전석 2천원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010-2752-9923) 부산클래식아티스트 페스티벌 20:00 첼 (취사콘느(010-4515-1842)</p>	<p>25</p>	<p>26</p> <p>오페라단 나눔 '오페라 라보엠' 19:00 대 12만원·10만원·8만원·5만원·3만원 오페라단 나눔(611-0132) 이강현 첼로 독주회 19:30 첼 전석 1만5천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10</p> <p>회 19:30 (010-9338-8485)</p>	<p>31</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0 제야음악회' 23:00 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0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선정작 '2020 영도다리연가' 19:00 중 전석 4만원/민요그룹 흥(503-9501)</p>	<p>부산문화회관 전시관</p> <p>제46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11월 16일(월)-12월 5일(토) 부산미술협회 632-2400</p> <p>(재)부산문화회관 2020년도 문화예술아카데미 발표회 '예술로 뽐내기' 12월 12일(토)-12월 17일(목) (재)부산문화회관 교육전시팀 607-6071~5</p>	<p>공민영</p> <p>최근 '코로나19' 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1 부산시민회관 백스테이지 투어 14:00 대 (재)부산문화회관(607-5235) 부산시민회관 백스테이지 투어 14:00 소 (재)부산문화회관(607-5235)	2
6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제6회 부산국악축제 II 19:00 대 (사)부산국악협회(644-5211)	7	8	9
13 EBS 번개맨 20주년 기념대작 '뮤지컬 번개맨'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5만5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	14	15	16
20 거리두기 좌석제 콘서트 '이십세기 이승환' 16:00 대 14만3천원·13만2천원·12만1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 이유나 두 번째 독창회 '동짓달 지나긴 밤을' 15:00 소 이유나(010-6523-3719)	21	22	23
27 2020 코로나19블루 극복을 위한 힐링캠프 15:00, 18:30 대 (주)하늘이엔티(1688-6675)	28	29	30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2	3	4	5
9	10	11	12
6	17	18	19
3	24	25	26
0	31		

2020년 라이온스 송년음악회 18:00
 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642-3606)

EBS 번개맨 20주년 기념대작 '뮤지컬 번개맨'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5만5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
 아르코 2020년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선정/남북
 해외청년예술가 합작 기획공연 '2020 출강' 19:00
 소 몽키즈댄스스튜디오(010-8535-5453)

2020 생명나눔의 날 '제15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 19:00
 소 (사)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853-0429)

거리두기 좌석제 콘서트 '이심세기 이승환+' 17:00
 대 14만3천원·13만2천원·12만1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
 유관순 열사를 기리며 15:00
 소 (사)동초제판소리보존회 부산지회(512-1616)

2020 코로나19블루 극복을 위한 힐링캠프 14:00,
 18:00
 대 (주)하늘이엔티(1688-6675)
 부산시민회관 뮤지컬 명작극장 '맘미미' 19:00
 연 무료(사전예매)/(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0 코로나19블루 극복을 위한 힐링캠프 18:00
 대 (주)하늘이엔티(1688-6675)

2020 노을 연말 투어 콘서트 '노을이 내린 밤'- 부산
 19:00, 23:00
 대 13만2천원·12만1천원·9만9천원
 (주)밝은누리(1566-9621)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토백회전
 11월 30일(월)-12월 6일(일) 제1전시실
 토백회 010-9858-9493
 Panorama in Busan
 12월 2일(수)-12월 6일(일) 제2전시실
 허병철 010-6280-5236
 제29회 동협전
 12월 8일(화)-12월 13일(일) 제1전시실
 부산동구청 440-4065
 부산경상대학교 IT 콘텐츠학과 졸업전시회
 12월 15일(화)-12월 20일(일) 제1전시실

부산경상대 IT 콘텐츠학과 010-5291-1481
 부산숲, 사라진 정원의 재발견
 12월 15일(화)-12월 20일(일) 제2전시실
 이미지사진연구회 010-9084-0230
 제31회 청남서예대상전 입상작전
 12월 23일(수)-12월 26일(토) 제1, 2전시실
 (사)청남문화 010-4533-2233
 제24회 효원사우회 회원전
 12월 28일(월)-12월 31일(목) 제2전시실
 효원사우회 010-2564-7583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Adieu 2020, Welcome 2021

경자년(庚子年)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송년무대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오는 해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송년무대가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이벤트성 무대는 지양하는 한편, 코로나시대에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힐링의 무대로 꾸며진다.

우선 부산시립예술단에서는 12월 17일 부산시립합창단의 '2020 송년힐링콘서트'를 시작으로 18일 부산시립교향악단, 19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2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3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등 5개 단체의 송년무대가 이어진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매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새해를 맞는 (재)부산문화회관만의 특별한 무대 '제야음악회'가 열린다.

여느 해보다 유난히 힘들고 길었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는 희망과 감동의 순간을 가까운 지인, 가족들과 함께 부산문화회관에서 가져보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지휘 | 이기선



소프라노 | 오신영



기타리스트 | 김경태



피아니스트 | 하순원

저물어가는 2020년 송년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부산시립합창단 ‘2020 송년힐링콘서트’는 수석지휘자 이기선의 지휘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오페라 아리아,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곡으로 시민들의 코로나블루를 날려버린다.

1부 무대에서는 그리그의 ‘페르귄트 조곡’ 중 ‘아침의 기분’을 시작으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을 들려준다. 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주는 ‘아침의 기분’은 북유럽의 쇼팽이라 불리는 노르웨이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그리그가 입센의 희곡 ‘페르귄트’에 곡을 붙인 제 1모음곡 중 첫 번째 곡으로, 조용한 새벽빛이 떠오르는 해안의 아침 기분을 경쾌한 목가풍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지난 2017년 리더 여대현을 중심으로 열정 넘치는 연주자들이 모여 창단한 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는 뮤지컬, 합창반주 및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로, 창단 그해 뮤지컬 갈라콘서트 ‘레미제라블 콘서트’ 반주를 맡아 부산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로,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장 기간 공연 중인 ‘오페라의 유령’의 메인 타이틀곡은 소프라노 오신영과 부산시립합창단이 노래한다. ‘밤의 여왕’ 아리아로 한국과 미국, 독일 등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소프라노 오신영은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메네스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로시니의 ‘비단사다리’ 주역으로 뉴욕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후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오신영은 이번 무대에서 그에게 명성을

안겨준 ‘밤의 여왕’ 아리아를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1부 무대의 마지막은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경태의 무대로,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기타 협주곡으로 손꼽히는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을 연주한다. 현재 부산페스티벌 기타양상블 상임지휘자, 폴리포니기타듀오 멤버, 한국기타협회 지부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경태는 대구국제기타페스티벌 양상블 2위,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치 ‘라이징스타’ 3회 수상한 바 있다.

2부 무대에서는 충신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하순원의 ‘랩소디 인 블루’에 이어 송년 분위기를 북돋워 줄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곡과 오페라합창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클래식과 재즈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관객을 사로잡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는 오늘날에도 각종 드라마나 광고의 배경음악, 대중가요에 삽입되는 등 그 인기가 여전하다. 피아니스트 하순원은 충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전문 연주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는 한편, SW리베에 솔단 단장으로 있으며 음악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있다.

송년무대의 마지막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항상 연주되는 캐롤을 들려준다. ‘The First Noel’, ‘Joyful, Joyful’, ‘Jingle Bell Rock’ 등 유명 캐롤과 ‘미국 오케스트라 경음악의 거장’이라 불리는 크로이 앤더슨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메들리로 엮은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부산시립합창단이 경쾌한 하모니로 들려준다.



Beethoven Plus IV / Again, R. Strauss!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0회 정기연주회

부산MBC와 함께하는 부산시향의 베토벤 플러스

12. 18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지휘 | 최수열 ©박재형



피아니스트 | 김태형 ©ArtN

매년 베토벤 교향곡 ‘합창’으로 송년무대를 가
져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해 코로나19 확
산에 따라 대규모 공연개최가 어려워지면서
2020년 시리즈로 계획했던 ‘Beethoven Plus’
네 번째 무대이자 ‘Again, R. Strauss!’ 첫 번째
무대를 선보인다.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정기연
주회를 통해 꾸준히 베토벤의 작품을 선보여
왔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베
토벤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프랑스의 작가 로
망 롤랑이 ‘겉작의 숲’이라고 부를 만큼 베토
벤 제2기의 정점을 형성한 피아노협주곡 제5
번 ‘황제’를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협연으로 들
려준다. 곡명인 ‘황제’는 곡의 웅혼하고 장대한
아름다움이 제목과 어울리지만, 이 이름은 베
토벤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라, 장대한 곡상과
호탕한 구성이 마치 왕의 품격을 연상시킨다
고 하여 붙여진 속칭이다.

타고난 균형감과 논리정연한 해석으로 한국
을 대표하는 젊은 피아노 주자로 알려져 있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은 일찍이 하마마쓰 콩쿠
르와 롱-티보 콩쿠르 입상, 인터라켄 클래식스
콩쿠르, 모로코 콩쿠르, 프랑스 그랑프리 아니
마토 콩쿠르에서 연속 우승, 퀸 엘리자베스 콩
쿠르 5위, 영국 헤이스팅스 피아노 협주곡 콩
쿠르에서 우승과 청중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바이올리니스트 이지
혜, 첼리스트 사무엘 루츠커(Samuel Lutzker)
와 함께 트리오 가운을 결성, 2018년 호주 멜

버른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2위 입상과 더불
어 청중상과 현대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
태형은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실내악 연주도
병행 중이다. 김태형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뮌헨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경희대학
교 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어지는 곡은 미국 현대음악의 선구자로 평
가받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찰스 아
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으로, 존재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세 개로 뚜렷하게 분리
되는 사운드의 층위로 만들어낸다.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올해부터
선보이는 장기 프로젝트 ‘Again, R. Strauss!’.
지난 2017년 최수열 지휘자 취임과 동시에 국
내 교향악단으로서는 처음으로 ‘리하르트 슈
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에 도전, 슈트라
우스 서거 70주년이 되던 지난해 전곡 사이클
을 완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던 부산시립교
향악단은 올해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 슈트라
우스의 주요 작품을 완성도를 높여 다시 한번
선보인다. 그 첫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제543회 정기연주회(2018년 9월 7일)에서 선
보였던 ‘죽음과 정화’를 연주한다. ‘돈 후안’의
뒤를 잇는 두 번째 교향시인 이 작품은 슈트라
우스가 시인 알렉산더 리터의 시에서 아이디
어를 얻어 죽음이라는 관념을 소재로 한 곡으
로, 인간의 다양한 고통과 투쟁, 죽음을 통한
진정한 해방이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을 음악화
하고 있다. 지휘 최수열 예술감독.



Santa, Jazz & Unplugged

12. 19

토요일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2천원



지휘 | 김수현



연출 | 최준혁



엘렉톤 | 김희은



바이올리니스트 | 김연정



피아니스트 | 유영욱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낼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음악선물을 마련한다. 12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158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 Unplugged’에서는 수석지휘자 김수현의 지휘, 최준혁의 연출로 흥겨운 재즈와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관객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한다.

연출자 최준혁은 뮤지컬 ‘삼총사’, ‘제스’, ‘두도 시야기’, ‘올숙업’, ‘작업의 정석’ 등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코랄컴퍼니,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서울시여성연합합창단, 이투스 마스터코랄의 안무를 맡은 바 있다.

1부 무대에서는 영국의 합창지휘자이자 유명 작곡가인 밥 칠콧(Bob Chilcott)의 로맨틱한 재즈미사곡인 ‘Nidaros Jazz Mass’를 소년소녀합창단의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로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엘렉톤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은과 드럼주자 김영훈, 베이스리스트 전영주가 연주를 맡아 재즈의 흥겨움을 더해준다. 일본의 야마하에서 개발한 전자악기인 ‘엘렉톤’은 키보드와 신디사이저를 합친 형식으로, 폭넓은 음역과 기교의 연

주가 가능하여 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음향을 재현할 수 있다.

2부 무대에서는 부산 챔버오케스트라 수석, 뮤즈앙상블, BS오퍼스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정과 한국국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사)부산음악협회 회장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유영욱의 협연무대를 시작으로 마술같은 크리스마스 이벤트 ‘산타 언플러그드(Santa Unplugged)’를 신나는 안무와 함께 선보인다. 김연정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및 미국 인디애나 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Chicago Civic Orchestra 단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유영욱은 연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로스톡 국립음대 Diplom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부산신포니에타, 진주시립교향악단, 불가리아 국립필오케스트라 협연 및 실내악, 반주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났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4회 정기연주회
Travel(여행)

12. 22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2천원



지휘 | 이명근



소프라노 | 이정은



테너 | 황병남



바리톤 | 신흥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서는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는 12월,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기 위한 음악여행을 떠난다. 이명근 수석 지휘자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 작곡가 존 애덤스, 아론 코플랜드의 곡을 비롯해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로 올해보다 나은 2021년을 기다리며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

첫 곡인 존 애덤스의 '질주 속에서의 짧은 탑승(Short Ride in A Fast Machine)'은 지난 1986년 초연된 작품으로, 마치 빠른 스포츠카를 탄 듯한 타악기의 신나는 리듬과 관악기의 환상적인 음색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폴리처상 수상으로도 유명한 아론 코플랜드의 '애플레치아의 봄'은 원래는 미국 무용의 대모인 마르타 그레이엄을 위해 작곡된 발레음악이었으나 오케스트라곡으로 편곡되어 더 널리 알려졌으며, 곡 구성구석에 민요적인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이 녹아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이정은, 테너 황병남, 바리톤 신흥규가 출연, 레하르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당신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시작으로 뮤지컬 '지킬박사와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라',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중 '밤새도록 춤을 출 수 있다면',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뮤지컬 '회전목마' 중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투나잇'에 이어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

배의 노래'로 송년무대의 흥을 돋운다.

소프라노 이정은은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 및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 성악과,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Cava de 'Tirreni 2008 Premio Portico 2위, 국제성악콩쿠르 'Chianciano Terme', 종교음악 국제성악콩쿠르 'Musica Sacra'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국립오페라단 시즌오페라 '루살카', 서울시오페라단 '수녀 안젤리카' 등 다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가톨릭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황병남은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테트몰트 국립음대 대학원 성악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Bad Hersfelder 오페라 축제 '올해의 신인 성악가상', 오스트리아 Ferruccio Tagliavini 국제 성악콩쿠르 우승 및 최고 테너특별상, 올해의 평론가상, 일본 Madam Butterfly in Nagasaki 국제성악콩쿠르 2위, 2007 서울 국제음악콩쿠르 2위 등 수차례 입상한 바 있다. 바리톤 신흥규는 가천대학교(구 경원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테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슈베르트 가곡 콩쿠르, 스위스 Schlossoper Haldenstein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홍보대사, 가천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2020 경자년(庚子年) 송년음악회

12. 23

수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층 1만원, 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지휘 | 김정수



엘토 | 정은경



가야금 | 고연정



국악전문단체 | 타로



판소리 | 정효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2월 23일 ‘2020 경자년 송년음악회’를 통해 신명 넘치는 우리 음악으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김정수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 창작국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평가받는 **故 이준호** 작곡가의 대표곡을 관현악 앙상블로 새롭게 창작한 ‘Memorial songs’을 비롯해 다양한 창작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첫 곡인 위촉곡 ‘Memorial songs’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을 졸업하고 경기도립국악단 단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을 역임한 이정면이 작곡한 창작곡으로, **故 이준호** 작곡가의 생황협주곡 ‘풍향’과 국악관현악 ‘축제’, 그리고 해금독주곡으로 널리 알려진 ‘그저너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를 관현악 앙상블로 작곡한 곡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엘토 수석으로 있는 정은경이 부르는 신가악 무대로, 서울국악관현악단 대표 및 상임지휘자로 있는 김성경의 곡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새벽’을 들려준다. 이 곡은 김성경이 성악협주곡 형식의 국악창작곡인 신가악(新歌樂)을 주제로 발표한 3집 음반 ‘빛의 나그네’에 수록된 작품으로, 현대시나 옛시조에 선율을 실어 국악관현악 반주에 의해 노래 부르도록 작곡된 곡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 수석,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겸임교수로 있는 가야금 연주자 고연정은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파사칼리아’를 들려준

다. 작곡가 박영란의 ‘파사칼리아’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제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국악관현악과의 협주곡으로 재창작한 곡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악음악인 산조의 선율과 리듬을 바로크시대의 변주곡 형식인 파사칼리아와 융합하여 전개시킨 작품이다. 국악전문단체 ‘타로’는 바다를 소재로 한 판소리 ‘수궁가’와 민요 ‘뱃노래’를 타로만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현대적인 연주형태로 구성한 백규진 곡 ‘수궁가와 뱃노래를 위한 새울림’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 북 합주 ‘New wave’를 들려준다. 지난 2004년 창단공연을 가진 후 지금까지 다양한 무대에 서온 ‘타로’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퓨전음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국악전문단체로, 매년 뜨거운 성원 속에 매진사례를 이뤄내며 부산무대예술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마지막 무대로는 ‘진도씻김굿’을 모티브로 한 작곡가 이정호의 합창과 진도씻김굿, 국악관현악을 위한 ‘진혼’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정선희, (사)영남전통예술진흥회, T-Band 블루, 젊은소리쟁이 음악감독으로 있는 소리꾼 정효선,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들려준다. 특히 ‘진혼’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곡이자 살아남은 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곡으로, 올 한 해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무대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0 제야음악회

12. 31

목요일 오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지휘 | 김광현



피아니스트 | 신창용



소프라노 | 손지수



테너 | 김승직



매년 부산음악애호가들로부터 특별한 새해맞이 이벤트로 사랑받아온 '2020 제야음악회'는 올해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광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TBN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피아니스트 신창용, 소프라노 손지수, 테너 김승직이 출연,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마에스트로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지휘자 김광현은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세계적인 거장 샤를 뒤트와로부터 한국 대표 신예지휘자로 발탁되어 일본 미야자키 페스티벌에서 규슈 심포니를 지휘했으며, 재학생 최초로 서울대학교 60주년 기념 정기오페라 '돈 지오반니'를 지휘하기도 했다. 이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휘자협회'에서 우수 지휘자로 선발되기도 한 김광현은 만 33세이던 2015년 국공립 음악단체의 수장으로서는 최연소로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0년을 보내는 1부 무대에서는 재즈의 독특한 감각과 선율적 특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미국인이 본 파리의 인상을 랩소디풍으로 구성한 거슈윈 곡 '파리의 미국인'을 첫 곡으로, 20세기 최고 인기곡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을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열정과 감동, 화려한 테크닉을 지닌 피아니스트 신창용은 2018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아티스트 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2017년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위, 2016년

힐튼헤드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1위 입상했으며, 2018년 교향악축제에 참가하여 '섬세한 슬픔 속, 섬세한 아름다움'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되는 2부 무대에서는 오페바호 '천국과 지옥' 서곡 중 '강강'을 시작으로 아르디티의 달콤한 가곡 '입맞춤',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 '트레팍',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중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 레하르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그리고 송년무대의 단골 레퍼토리인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2021년 희망찬 새해를 맞는다.

2부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손지수는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금호영아티스트 오디션에 발탁되어 금호아트홀에서 리사이틀을 가졌다. 이후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 후 제10회 대한민국오페라 페스티벌 오페라 '사랑의 묘약' 오디션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디나'役に 발탁되어 이른 나이에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데뷔한 후 현재 전문연주자로 활발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차세대 성악 유망주로 손꼽히는 테너 김승직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세계적인 권위의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3위를 수상하고 2014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파이널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김승직은 2021-2022 시즌부터는 독일 쾰른오페라극장 오픈스튜디오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Happy
New Year

2020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NEW YEAR'S EVE CONCERT

2020. 12. 31 (목) 23:0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자 김광현 피아노 신창용 소프라노 손지수 테너 김승직 사회 손지현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MBC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 (ARS 1번)

밥의 사회학

—

채영희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본지 편집위원

한 끼 식사는 하루를 위로하는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한 끼 식사는 삶이라는 과제를 살아내기 위한 고된 노동이 되기도 하고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영어의 친구 혹은 동료를 뜻하는 ‘companion’이라는 말에는 라틴어 ‘함께(cum)과 ‘빵’(panis)을 뜻하는 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은 곧 친구이거나 친구가 될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숨어 있다. 친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던 즐거움을 코로나19로 빼앗긴 이 멋진 가을에 식당에서 면벽을 하고 수행하는 고승처럼 말없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처지가 그저 애처롭기만 하다.

사회학자 짐멜(Georg Simmel)은 <식사의 사회학>(1910)에서 수렵 채집하던 선조들이 사냥에서 얻은 전리품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에서부터 부족의 유대감을 키우고,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 식사 공유의 원시적인 기반을 얻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굶주림이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특정 시기, 특정 구성으로 한데 모으게 되는데, 그때 공동식사가 사회 내에서 가장 유력한 권력의 배열 도구가 된다고 간파했다. 이러한 모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해졌지만, 식탁의 문명화는 식사의 진정한 동기를 숨기는 걸치레에 불과하며 진정한 동기는 개인의 이기심 만족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요리를 해야 하고, 식탁에 앉은 사람에게 누군가는 요리를 내와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모든 식사에는 암묵적 계급이 존재한다고 했다. 결국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고 나르는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누린다는 것



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힘과 지위는 그 사람이 무엇을, 언제, 얼마나, 누구와 먹을지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정치인이 말하기를 '정치적 목적이 다른 사람과 의도하는 바를 얻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최근 한국의 청년들 사이에는 '프로훈밥러'라는 신조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훈밥은 '혼자서 밥을 먹는 일'을 의미하는 말이고 여기에 '프로'라는 접두사가 붙었다. 이제 우리의 청년들은 혼자서 밥을 먹는 행위마저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지를 부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프로훈밥러'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추어가 프로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만큼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혼자서 밥을 먹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수근거림을 견뎌내야 한다. 그리고 혼자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도 견뎌내야 한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바둑에서 아마 1단에서 프로 10단에 이르기까지 국수는 수없이 많은 대국에서 승수를 쌓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프로훈밥러도 아마에서 프로로 승격되기 위해서 많은 식사의 대국에서 승수를 쌓아야 한다. 먼저 가장 낮은 단계의 레벨부터 최고 고수의 훈밥러가 되기까지 난국을 견디어 내야만 한다. 낮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대중 식당에서 혼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면 그는 겨우 1단계의 레벨을 통과한 것이다. 여러 사람이 와서 자유롭게 즐기는 뷔페 식당에서 혼자서 뷔페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5단계의 레벨을 통과한 것이다. 설날, 추석 명절에 가족 단위로 외식을 즐기며 오순도순 북적거리는 소불고기집에서 혼자 4인용 테이블을 차지하고 태연히 숯불을 끼고 앉아 소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면 드디어 10단계의 고수 레벨에 도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인증의 시대다. 프로훈밥러라는 밥 먹기의 고수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낮은 이들의 집합체인 커뮤니티 유저들의 인증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이들의 인증을 거쳐야 진정한 프로훈밥러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훈밥은 더 이상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니다. 한 평 고시촌 쪽방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의탁하고 뚝뚝뚝 걸어 나가는 고된 청년들에게 훈밥은 슬픈 삶의 노동이었다. 노량진 고시촌 컵밥집 앞에 옹기종기 서서 허겁지겁 시간에 쫓겨서 밥을 우겨 넣으면서 영단어를 외우던 청년들의 눈물 젖은 식사는 이제는 일종의 '맘'이 되었다. 밥 먹는 행위를 하나의 즐거운 게임으로 둔갑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그저 애잔하고 슬프다.

유튜브에 흥미를 끄는 노래 하나가 있다. '마스크를 벗고나면'¹⁾이라는 노래인데 지금의 상황을 빗대어 마스크 벗고 나면 친구들과 함께 밥도 먹고, 뮤지컬도 보고, 함께 운동도 하고, 부모님께 전화도 걸고, 세계 평화도 논하자는 가사이다. 흥겨운 운율에 슬픔이 물씬한 가사를 듣고 있노라면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친구들에게 다음에 만나면 밥 한번 먹자고 했던 공수표가 모두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 것만 같다.



1) <https://youtube/TdZwU6ECqsk> '마스크를 벗고나면'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17

물잎



동길산 시인

✉ dgs1116@hanmail.net

어디에서 봐도 반짝이는 당신

앞 지는 나무에
 빗방울이 잎 대신 맺힌다
 몇 달이나 맺은 연 거의 다 내려두고
 실의에 빠졌던 나무
 이제 막 피는 떡잎 같은 물잎을
 듬성듬성 매달고 생기가 돈다
 물잎 한 잎 한 잎
 또는 한 방울 한 방울
 약속이나 한 듯
 가장 둥글어져서야 똑똑 떨어지고
 가장 무거워져서야 똑똑 떨어진다
 오래 가지 못할 연이나마
 늦추고 또 늦추다가
 가장 나중이야 거두어들인다
 한낮의 빛이 파고들어
 여기 반짝이고 저기 반짝이는 물잎
 실의에 빠졌던 나무가
 여기 반짝이고 저기 반짝인다

동길산 시 '물잎'

새순이 날 때도, 잎이 두툼할 때도 반짝이고
단풍이 들어서도, 이파리 떨구고도 반짝이는

비도 지치는가 보다. 오다가 말고 오다가 말고 그
 런다. 비는 어디쯤에서 오는 걸까. 얼마나 멀리서
 오기에 지칠 대로 지쳐 오다가 말고 오다가 말고
 그러는 걸까. 둘러보면 멀지 않은 데가 없다. 구름
 낀 하늘도, 저수지 건너 산모퉁이도 멀다.

나무는 생기가 돈다. 오다가 말고 오다가 말더라
 도 비가 닿는 족족 받아들인 덕분이다. 나무는 왜
 나무인가. 한결같아서 나무다. 한결같은 자리, 한
 결같은 자세다. 오다가 마는 비밀지라도 한 자리,
 한 자세로 나무에 닿는 족족 받아들인다.

생기가 돌기는 마당 감나무도 마찬가지다. 그 많
 던 이파리 죄다 떨구고서 실의에 빠졌던 감나무.
 감나무는 우리 집 마당에서 가장 높다랗다. 가장
 높다랗기에 우리 집에선 비도 가장 먼저 맞고 생
 기도 가장 먼저 돈다.

우리 집 나무는 다들 마음이 여리다. 속이 깊다고
 해야 하나. 집 들어오는 자리에 심은 은행나무가
 그렇고 별채 무화과가 그렇다. 봄부터 겨울에 이
 르기까지 함께하던 이파리가 하나둘 떨어져 가
 도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여려서다.

비는 속이 깊다. 모든 비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나
 무에 내리는 비만 속이 깊다. 속이 깊어서 잎 진
 나무에 내리고 속이 깊어서 이파리 찢던 자리에
 맺힌다. 맺혀서는 가장 둥글어져서야 똑똑 떨어
 지고 가장 무거워져서야 똑똑 떨어진다.

나무는 늘 반짝인다. 새순이 막 날 때도 반짝이고
 잎이 두툼할 때도 반짝이고 단풍이 들어서도 반
 짝인다. 이파리 죄다 떨구고서는 물잎으로 반짝
 인다. 물잎은 둥글어 어디에서 봐도 반짝인다. 어
 디에서 봐도 반짝이는 당신 같다.

부산의 중심에서 문화를 향유하라 리 갤러리



박나무 자유기고가

부산에서 오래된 사람이라면 영광도서의 힘을 기억할 것이다. 다른 힘이 아니라 문화와 시민을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힘, 먹고살기도 힘든 시민들을 문화의 장으로 데리고 나오는 힘... 20~30년 전 문학과 관련된 강연회가 있다 치면 그 장소는 영광도서 문화사랑방이었고, 시를 배우고 고전을 읽는 모임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어쩌면 집회 혹은 시위 같아 보이는 모임도 문화사랑방을 빌려서 했던 것도 같다. 그만큼 시민들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공간이었으리라. 문화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신문에서나 보던 작가들을 눈앞에 두고 함께 작품을 이야기하는 곳은 부산 아니라 서울에도 잘 없던 시절이었다. 영광도서는 그런 힘이 있었다.

영광도서는 10월 24일 지하 3층 지상 17층의 건물로 새로 태어났다. 1968년 15평 작은 공간에 헌책과 잡지 몇 권을 두고 책을 팔던 영광도서가 서면 중심부에 우뚝 솟은 건물로 변모한 것 이 중 지하 3개 층과 지상 1층은 서점으로, 8층과 9층은 리 갤러리로 운영된다. 리 갤러리는 영광도서가 계속 붙들고 있는 그 문화사랑방, 그리고 새롭게 문을 연 영광문화홀, 전시공간 등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리 갤러리는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누구나 와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공연, 전시, 강연, 그 외 무엇이든 젊은이들이 신명나게 노는 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진가이며 차(茶)전문가이고, 문화예술학박사이기도 한 이경순 관장이 펼쳐낼 리 갤러리의 나라가



어디까지일지 기대가 자못 크다. 백지 상태로 내놓았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들이 실사로 나타나지 싶다.

우리가 리 갤러리를 찾았을 때는 마침 10주년을 맞은 일생활균형재단이라는 단체의 '인생한컷'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50대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억하는 순간의 사진을 사연과 함께 공모한 것인데, 열심히 살았던 시절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자리로 펼쳐지고 있다. 12월 7일부터는 흠으로 빛은 나한(羅漢 수행의 경지가 높아 번뇌가 소멸된 이를 가리킴)과 보듬이(찾그릇을 우리 말로 지어부르는 이름)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허경혜 선생의 '나한전'과 심영란 선생의 '보듬이전'이 <앞뒤끝밀전>이라는 다정한 이름으로 예정되어 있다. 전시장을 길게 잘라 만든 갤러리 2관은 상설전시판매장으로 운영할 계획. 원본 작품을 10만원 안팎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작가들과 의논해 전시하고 시민들이 카피가 아닌 원본을 선물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게 리 갤러리의 바람이다. 그렇게 작가들도 적절한 수입을 갖고 시민들의 작품소장 수준도 한 단계 높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바닥과 조명에 유난히 정성을 많이 쏟아 그 어느 전시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던 김지한 기획실장의 귀뜸에도 힘이 들어가 있다.

공연장으로 사용될 문화홀 1관은 2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고광량 레이저 프로젝터(EB-L1505UH)로 영화관 수준의 영상시설을 갖추고, 그랜드피아노와 조명, 앰프 스피커 등도 연주자들이 흡족할 정도로 준비되었다. 서면의 중심에 이런 공연장이 갖춰진 것은 시민들에게 참 좋은 기회이겠다. 큰 마음 먹고 승용차를 몰아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혹은 벅스코까지 가야하는 공연이나 전시도 있겠지만, 사통팔달 교통 편한 서면에서 책도 사고 멋진 전시도 보고 좋은 공연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서점과 리 갤러리를 제외한 공간들은 금융회사와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 덕에 영광도서가 어려운 책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고, 새롭게 단장한 리 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경순 관장의 솔직한 토로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애매하다. 영광도서와 문화사랑방이 그간 지역문화에 끼쳐온 선순환에 박수를 보내며, 리 갤러리의 앞날에 지원을 보내고픈 마음은 분명하다. 힘을 잃지 말길 바란다.

문의 : 리 갤러리 051-816-9506, www.ykbook.com



향수, *Le Parfum*

그 향기의 역사

김태형 조향사, Atelier de Gabriel 대표



마스크가 우리의 얼굴을 가린지도 벌써 일 년이 다 되어간다. 이제는 영상매체 속 인물들의 맨 얼굴을 보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 우리 일상이 고통스러워진 것은 비단 마스크를 낀 모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얼마 전 백화점을 방문했을 때 재미난 광경을 목격했다. 향수 브랜드의 점원이 마스크를 낀 채 시향지를 나누어주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곳을 무심코 지나쳤을 이유는 그 장면에서 어떤 향기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로 후각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작년 까지만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간의 스킴에는 향이 배어 있었다. 누군가가 내 옆을 지나가며 흘리는 이름 모를 향수의 흔적이라든가,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잡고 걸을 때 느껴지는 살내음이라든가. 어스센가 일상을 물들어버린 코로나 블루는 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친다. 향기가 사라진 세상은 너무도 삭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향을 탐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자 본능이기에 당연한 반응이다.

인류가 냄새와 구분지어 향을 다루게 된 것은 기록으로만 살펴봐도 이천여 년도 훌쩍 지난 고대 이집트 시대의 일이다. 냄새와 향의 구분은 생각보다 명확한 개념인데 우리가 '꽃냄새, 좋은 냄새' 혹은 '배설물, 역한 냄새'처럼 좋고 싫음으로 나누는 것에서 탈피하여 냄새에 의도를 담아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은 향이 된다. 클레오파트라가 스스로를 향으로 치장하여 자신을 죽이러 온 마크 안토니를 유혹해낸 것처럼 말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향과 함께 살아왔고,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향기에 길들여져 왔다.



물론 인류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사람 간에 통하는 향기가 금기 시되었던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향을 다루는 사람이 담을 수 있는 메시지란 무궁무진하지만 본래 향의 원초적인 역할은 그것을 맡게 되는 존재의 이목을 끄는 것이다. 필자는 평소 '천연 원료는 자연이 만들어낸 향수이다'라고 생각하며 여러 강연에서 피력해왔다. 인간은 왜 향수를 사용하는가? 본인의 개성을 향으로 알리고 싶거나 조금 더 단순하게는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사용한다. 자연에서도 향의 쓰임새는 매한가지이다. 자신의 영역을 남에게 알리거나, 본인을 각인시키거나, 번식을 하기 위해 이성이나 새나 곤충 같은 번식매개체를 불러들이는 목적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을 알아보거나, 특히 이성을 유혹하는 것이 제한되던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향이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향이 금기가 되었던 시절은 오로지 한 번, 중세 시대였다. 중세 시대란 그리스-로마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사이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엇갈리는 평가를 감안하더라도 신에 의한, 신을 위한 요소들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였으므로 인간 중심의 문화예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기 힘든 시기였음은 확실하다. 중세 시대에는 나와 타인이 향에 의한 소통을 할 필요가 없었고, 남을 유혹하기 위해 향을 뿌리는 여자는 마녀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에 인류와 향기의 접점을 유지해 온 것 또한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는 향이 나는 식물에는 약효가 있다고 믿어, 그들을 신의 선물로 여기며 연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400여 년도 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 '산타 마리아 누벨라'이다.

다행히도 향의 암흑기였던 중세 시대는 르네상스가 도래함에 따라 끝을 고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로 다시 태어남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인간의 육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황금비율을 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노래했던 인간 중심의 그리스-로마 시대로 부활하는 시기인 것이다. 억눌려있던 욕구와 욕망들이 폭발하듯 터져 나오면서 인류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 자체가 향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전을 펼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물론 중세 시대처럼 향이 금기 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향이 제한된 시대에 살고 있다. 동이 트기 전 우리는 가장 깊

은 어둠을 마주하게 된다. 어쩌면 이 구절처럼 우리는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직전에 도달해 있을 수도 있다. 내년이면 다시 길거리에서 스치는 이의 향수 냄새에 매료되거나, 지인과 함께 좋아하는 향수 브랜드들의 부티크를 마음 편히 거니는 날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 나는 향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말해주고 인류의 역사가 다시 증명한다.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향을 찾고, 시향하고, 나누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쉽지 않다 해도 말이다.

나는 조향사를 꿈꾸며 2013년 프랑스로 떠났다. 그리고 2014년의 늦은 여름, 파리의 향수 대학교 Ecole Supérieure du Parfum 에 진학하기 위해 진심을 새겨가며 완성했던 동기서의 한 귀퉁이에는 내 현재 모습의 당위성이 담겨있다. 프랑스의 향 문화를 배워 나의 조국에서 향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고백, 그 바람을 펼쳐온 지도 3년이 되어간다. 개인 아틀리에 'Atelier de Gabriel'로 향의 세계에 굉장한 열정을 가진 분들을 만나왔고, 에세이집 '나는 네Nez입니다'를 통해 닿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향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대를 맞닥뜨리고 나서 더욱 내가 행할 수 있는 역할에 큰 감사함을 느낀다. 향기가 멈춘 오늘날 누군가의 코를 드러내게 하고 향을 맡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재)부산문화회관의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 '향수(Le parfum), 그 향기의 역사'를 준비하면서도 이러한 이유로 꽤나 가슴이 벅차왔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순간에는 잠시 멈춰 숨고르기를 하며 뒤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특강에서는 이 글에서 짧게 언급되었던 고대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향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던 근대 시대를 지나, 오프 꾸뛰르 패션 브랜드들의 향수가 빛났던 20세기, 그리고 거대해진 향 산업 속 수많은 향수들이 우리 곁에 펼쳐진 오늘날까지 인류가 향과 함께한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올라올 예정이다.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다행히 그에 엮인 아름다운 향기들이 여럿 준비되어있다. 향을 맡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또 한동안 잊고 있었던 향을 일상에서 되찾고 싶은 당신에게 이 강의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선사하고자 한다.



지휘 김수현

Santa, & Jazz Unplugged

Bob Chilcott_Nidaros Jazz Mass
Arr. Mark Brymer_Santa Unplugged

지휘 김수현(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연출 최준혁(뮤지컬 배우)

특별출연 바이올린 김언정
피아노 유영욱
엘렉톤 김희은
드럼 김영훈
더블베이스 전영주



2020. 12.19 토 7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재즈가 되다_바리톤 이용광



● (재)부산문화회관의 특별한 브랜드 공연 '마티네 콘서트'
마지막 무대가 12월 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17년 재단법인으로 첫발을 내딛은 후 시작된 '마티네 콘서트'는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깊이 있는 해설음악회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SBS 간판 아나운서이자 클래식 애호가인 박찬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여러 음악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2020년 마티네콘서트를 마무리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젤 오페라 하우스의 전속 주역을 역임한 '스위스의 보석' 바리톤 이용광을 만날 수 있다. 바리톤 이용광은 원래 마티네콘서트 첫 번째 주인공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번 12월로 공연이 연기된 바 있다.

'오페라, 재즈가 되다'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구민영, 피아니스트 이소영이 함께 출연, 거슈윈의 첫 번째 재즈 오페라 '포기와 베스'를 비롯해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밀러커 오페레타 '가스파로네', 레하르 오페라 '메리 워드

우'의 주요 아리아와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주제곡인 'Moon River', 벨기에의 디바 다나 위너가 노래한 러브송 'Ich Liebe Dich', 록앤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등 재즈감성이 묻어나는 다양한 곡을 감미로운 목소리로 들려준다.

유럽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해 온 바리톤 이용광은 2006년 독일 알렉산더 지라르디 국제콩쿠르 우승, 2008년 이태리 리카르도 잔도나이 국제콩쿠르 1위 및 3개의 특별상 수상, 2010년 스위스 에른스트 해플리거 국제콩쿠르까지 연이은 수상행진으로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으며 스위스 바젤 오페라극장의 전속가수로 캐스팅되어 유럽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했다. 현재는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0/2021 시즌 스위스 루체른 오페라극장과 리히텐슈타인 오페라극장에서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 중 타이틀 롤인 피가로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바리톤 이용광과 함께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구민영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서정적이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며 아카데미한 테크닉과 함께 화려한 기교를 겸비한 소프라노'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 일 시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1: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 기존 공연시간의 틀을 깬 저녁 9시, 실험적인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을 새로운 음악세계로 안내하는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가 12월 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감각과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지닌 최수열 지휘자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심야음악회’는 쉽게 접할 수 없어 낯설 수 밖에 없었던 현대음악을 소개하는 특별한 자리로, 한밤의 낭만과 실험적인 현대음악이 빛어내는 특별한 감상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난해 현대음악의 큰 줄기 중 하나인 ‘미니멀리즘(Minimalism) 음악’을 소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해 무대에서는 이민형 부지휘자의 지휘로 부산 출신의 대표 작곡가인 정수란의 신작 ‘탈춤’과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인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을 통해 섬세한 표현력과 잔잔한 감동을 전하는 현악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만날 수 있다.

첫 곡으로 만나는 정수란 작곡가의 위촉곡 ‘탈춤’은 자신의 내면을 감춘 채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심리적 상황을 그려낸 작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에 부합될 수 있는 전통 탈춤 중 하나인 ‘봉산탈춤’의 리듬 소재를 부각시켜 많은 사람들

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청중들과의 소통을 꾀한다. 이 탈춤에서 쓰여지는 장단 중 타령 장단 - 도드리 장단 - 타령 변형 장단을 응용하여 작품의 리듬적 논리성을 추구했으며, 한국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4도나 5도의 주요 음정 위에 불협화음을 덧칠하여 현대인의 불안한 정서를 채색하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연주 후 작곡가 정수란과의 좌담이 마련되어 있어 동시대 작곡가와의 소통과 더불어 신곡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곡가 정수란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작곡전공)을 졸업하고 도미,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가우데아무스 국제 작곡콩쿠르, 동경 피아노 듀오 작곡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안티스티움, 향사회, 부산작곡가회, 창작합창 21, 영남작곡가회 회원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지는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은 데멜(Richard Dehmel, 1863~1920)의 시집 ‘여자와 세계’ 중 ‘정화된 밤’이라는 시에 근거한 표제음악으로, 19세기 쇤베르크의 작품 중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꼽힌다.

- 일 시 12월 9일 수요일 오후 9: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Preview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Opera Gala Concert

2020. 12. 10^(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1부 고난과 위로

- 레온카발로/오페라 '팔리아치' 간주곡
- 조르다노/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중 '조국의 적'
- 칠리아/오페라 '아를르의 여인' 중 '페데리코의 탄식'
- 베르디/오페라 '아틸라' 중 '내 영혼이 자부심으로 가득 찰 때'
- 드보르작/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게 부치는 노래'
-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저주받은 가신이라는 종족'
-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고'
- 모차르트/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중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2부 소망과 사랑

- 베르디/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 베르디/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 카치니/아베 마리아
-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 마스카니/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부활절의 합창'
-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 김민기/내 나라 내 겨레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가 12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베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고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해설, UKO오케스트라, 부산오페라합창단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은주, 김유진, 정혜민, 왕수정, 테너 조윤환, 허동권, 이태흠, 바리톤 이광근, 안세범, 베이스 구본수 등 실력 있는 성악가들이 출연, 1부 '고난과 위로', 2부 '소망과 사랑'이라는 테마로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무대를 아우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지휘자 김봉미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후 데트몰트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했다. 2010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지휘콩쿠르에서 여성 최초로 수상, 음악계에 큰 화제를 모았으며, 제1회 신진 여성 문화인상 수상(문화관광부), 2011년 차세대를 이끌어갈 리더(국제신문)에 선정되기도 했

다. 2012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지휘자상을 수상하고 2015년 제1회 대한민국 창작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오프닝과 파이널 두 작품을 모두 지휘하는 등 오페라 지휘에도 큰 두각을 보인 김봉미는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시흥교향악단, 헤럴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다.

소프라노 박은주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쾰른 국립음대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다. 지난 1995년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에서 루치아로 데뷔한 후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주역가수로 활동해온 박은주는 유럽의 음악잡지 Opem welt가 선정한 노트라인 베스트 팔렌, 브레멘, 함부르크 주 최고의 소프라노에 이어 2010년에는 독일 중앙지 Frankfrud Allgemeine가 뽑은 올해의 'Discovery'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밀라노 G. Verdi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김유진은 그동안 부산불꽃축제 기념 오페라 '투란도트', 벅스코 오디토리움 개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등 다수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 및 솔로이스트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이태리 베니스 국립음악원 수석 입학 및 졸업, 베

르디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소프라노 정혜민은 이탈리아 라 페니체 국제콩쿠르, 이탈리아 아르페인 칸또 국제콩쿠르, 브레시아 마리아 칼라스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경성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신대학교 외래 강사로 있다. 이태리 Pavia F. Vittadini 국립음악원 졸업, Milano G. Verdi 국립음악원을 수료한 소프라노 왕수정은 토리노 국제콩쿠르 신인상, 몬테로소 국제콩쿠르 입상 및 청중상을 수상했으며, 오페라 주역으로 다수 무대에 서는 등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매력적인 음색과 순수한 감성을 지닌 테너 조윤환은 고신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원,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라이프치히 국립음악원 마이스터 액자멘 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베를린러 심포니커,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터, 부산시립교향악단, 바흐 솔리스트 서울, KNN방송교향악단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독일 라이프치히 '바흐국제음악제' 솔리스트, 독일 '김가우 국제음악제'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섰다. 동아대학교와 이태리 페로씨 국립음악원 졸업, 산타 체칠리아 국립아카데미 최고연주자과정을 수료한 테너 허동권은 이탈리아 카루소, 알카모, 비씨 다르페, 브린디시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서울시 오페라단 주역단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 이마에스트리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로마국립음악원 가곡과 및 오페라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테너 이태흠은 17' Concorso Internazionale di Musica 'Citta di

Caserta' Belvedere di San Leucio 국제콩쿠르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그동안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바리톤 이광근은 연세대학교와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 석사과정, 독일 마인츠 음악대학교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하고 일본 교토 오페라 콩쿠르, 이탈리아 베르디 국제콩쿠르, 스페인 바르셀로나 콩쿠르, 노르웨이 오슬로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그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은 이광근은 현재 독일 하겐 시립극장 '시몬 보가네그', '일 트로바토레'의 주연 객원가수로 있으며 부산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Licinio Refice 국립음악원, 로마 ARAM 아카데미, Il seminario di NORMA 아카데미를 졸업한 바리톤 안세범은 이태리 'Fausto Ricci' 국제콩쿠르 1위, 이태리 'Euterpe' 국제콩쿠르 3위, 개천예술제 은상 등을 수상하고, 현재 해피양상블 단원, 부산성악아카데미, 부산성악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JTBC 팬텀싱어 3에 출연하여 큰 화제를 모은 베이스 구본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크로스오버그룹 '안단테'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단했던 마음을 어루만지는 희망의 노래로 관객들에게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소프라노 박은주



소프라노 김유진



소프라노 정혜민



소프라노 왕수정



테너 허동권



테너 조윤환



테너 이태흠



바리톤 이광근



바리톤 안세범



베이스 구본수

살아야만 했던 이유

2020년 브랜드콘텐츠 공모 선정작 창작오페라 '그 이름 먼구름'

◆ 정두환 문화유목민, 음악평론가

오페라는 언어와 시각적인 면이 음악과 만나 가장 아름답게 어울리는 종합예술의 장르이다. 이러한 오페라를 만드는 작업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어울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한 분야이다. 특히, 창작오페라는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을 만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영역이다.

지난 11월 14일(토), 15일(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졌던 창작 오페라 '그 이름 먼구름'은 이러한 전제적인 요건을 감안할 때 쉽게 만나기 어려운 최고의 작품이었다. 이번 작품은 2020년 브랜드콘텐츠 공모 선정작으로 대본 박준근, 작곡 백현주, 연출 김성경, 지휘 전진을 비롯하여 이광근, 구민영, 박상진, 전병호, 박현진, 정수정, 강소영 등의 성악가와 J CHOIR, 어린이예술단 햇살나무, 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 등이 함께하였다.

'그 이름 먼구름' 그동안 창작오페라 '해운대 장산국 이야기', '선비'를 비롯해 창작음악극 '나혜석', 작곡가 4명이 공동으로 작업한 '금어기행'에 이은 백현주의 창작오페라이다. 그녀는 오페라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에서 작품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역의 작곡가를 넘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변화해 나갈 앞날이 기대되는 작곡가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많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창작에 대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며 음악극 연구소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예술구국(藝術救國)'을 이루





고자 했던 먼구름 한형석 선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관할 것이다. 창작의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이런 가운데 백현주와 같은 작곡가를 만나는 것은 부산으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드웨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소중한 소프트웨어를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작곡가 백현주는 “이번 창작오페라는 실험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잘 조화시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제작자의 말에서 밝혔다. 필자가 보기에 그의 목표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창작오페라는 그 대상이 독립운동가이자 작곡가 한형석이다. 그렇기에 후배 작곡가의 고민은 남달랐을 것이다. 이러한 흔적들이 선배 작곡가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오페라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하나되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창작오페라 ‘그 이름 먼구름’은 서주와 프롤로그를 포함한 전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작품 수로는 총 15곡이 연주되었다. 다양하게 불려지는 아리아와 합창은 막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었고 각 성악가들 역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공연을 마치고 공연장을 나오는 순간까지 오페라가 연결되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웬지 아쉬운 2%가 무엇일까? 전 막이 자연스럽게 하나되는 오페라의 흐름에서 조금이라도 흥얼거릴 수 있는 아리아가 보이지 않았다. 몇 마디라도 자연스럽게 흥얼댈 수 있는 아리아 말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이름 먼구름’을 대표할 아리아 한 곡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창작 오페라 ‘그 이름 먼구름’을 보면서 느낀 부산 오페라의 현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오페라단. 하지만, 한번 더 생각하면 오페라단이라기보다는 오페라 기획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 같다. 각 오페라단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예술 관계자들이 전속되어 있는 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니 말이다. 이는 무대에 올릴 오페라를 기획하여 상황에 맞는 구성원들을 섭외하고 무대를 만드는 기획 단체이다. 단지 장르가 오페라일 뿐이다. 다양한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페라 장르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창작오페라의 경우는 무대에 올려지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부산시와 관계기관에서는 오페라하우스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채울 관련 단체를 육성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한다. 외형의 건물은 적당한 시간과 자본이 투입되면 되지만 외형을 채울 내용은 많은 시간과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열정으로 충실히 채워갈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용을 채워줄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보다 세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오페라 곡 중에 흐르던 가사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독립된 나라에서 펼쳐질 자유로운 예술혼이 아니었을까? 희망을 품어줄 수 있는 사회, 다양한 예술혼을 인정해주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먼구름은 꿈꾸지 않았을까? 그 꿈에 필자의 희망이 담겨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체홉의 이야기>를 보다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체홉의 이야기'

◆ 정봉석 연극평론가, 동아대학교 교수

2020년 부산시립극단의 기획 프로그램의 주제는 안톤 체홉(Anton Pavlovich Chekhov)이다. 그 첫 공연으로 4월에 예정되었던 <벚꽃동산>은 코로나 사태로 내년 7월로 연기되었으나, 다행히 7월로 잡혔던 <갈매기>는 예정대로 공연하였다. 이어 11월에 예정된 <체홉의 이야기>도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다. 오히려 공연이 이어질수록 미증유의 고난이 연극인들의 예술혼을 더욱 불태우게 만든 듯했다.

<체홉의 이야기>는 체홉이 남긴 600여 편의 단편소설 중 다섯 작품을 선별하여 연극으로 각색한 앤솔러지 공연이다. 극작가로서뿐만 아니라 소설가로서 체홉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공연. 이 공연을 위해 선정된 5명의 연출가들이 저마다 개성적인 각색과 연출을 통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는 점은 또 하나의 매력이었다.

'첫 번째 이야기-내기'는 체홉이 푸시킨 상을 수상한 1888년(28세)에 창작한 단편이다. 강태욱 연출이 무대화한 <내기>는 19세기 말의 소설을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되살려내 고자 한 노고가 돋보였다. 사형과 종신형의 잔혹성을 비교하는 논쟁 끝에 한 금융재력가가 내기를 걸고 젊은 변호사를 15년 동안 감금하는 이야기인데, 연출은 감금기간을 20년으로 늘려 평균연령이 늘어난 시대의 변화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특히 소설의 문체인 묘사와 설명을 무대의 언어로 살려내기 위해 영상을 도입한 점은 탁월하였다. 과거 20세기 초에는 신파극에 부분적으로 활동사진을 도입하기도 했다. 연쇄극 또는 키노드라마(kino-drama)라고 하여, 연극의 중간중간에 극적 효과를 높이거나 실현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필름으로 찍어서 부분적으로 막에 비춰주던 형식이었는데, 이것을 오히려 현대연극의 기법으로 되살려서 사건의 전개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거나 인물의 내면의식을 다각도에서 포착해내는 장치로 활용한 아이디어는 인정할 만하다.

'두 번째 이야기-소피야'는 <불행>을 각색한 작품이다. 안드레이의 아내 소피야는 남편의 동료이자 이웃인 변호사 일리인으로부터 끈질긴 구애를 받는다. 무관심한 남편과 일리인의 구애 사이에서 흔들리는 소피야의 심리를 그린 소설이다. 박용희 연출은 원작의 삼각갈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제4의 인물인 하녀 소피야를 창조하고, 안드레이를 사모하게 되는 인물로 각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무대 위로 옮긴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연극적 특색을 창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플라톤이 'Politeia'에서 극과 서사의 특징을 미메시스(mimesis)와 디에게시스(diegesis)로 구



분한 이래, 변함없이 연극은 들려주기(telling)가 아니라 보여주기(showing)가 특징임을 상기하였으면 한다.

‘세 번째 이야기-공포’는 <불행>의 또 다른 버전이라 할 만하다. 귀농 지식인 페트로비치의 친구인 ‘나’는 그의 아내를 연모한다. 급기야 두 사람은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지만, 이를 페트로비치가 눈치 챈으로써 평소 친구가 가졌던 타자에 대한 공포심을 ‘나’도 떠안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간결하면서도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허무주의적 주제가 압권인 작품인데, 이혁우 연출의 <공포>는 그러한 소설의 문체를 노련하게 연극적 언어로 전환해내었다. 특히 소설 속의 숨은 화자를 무대 위로 노출하여 성우처럼 해설을 병치시킨 점은 인상적이다. 무대 위에 해설이 등장한다는 것은 원작 소설 속에 숨은 화자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독자들은 담론의 그늘에 숨어있는 서술을 통해 인물, 사건, 배경을 말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지만, 이 숨은 목소리를 극의 형태로 포착하여 무대 위에 드러냄으로써 관객들에게 소설을 들으면서 연극을 보게 하는 서사극적 체험을 선사한 것은 연출의 능력이다. 또 하나 이돈희의 연기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걸식하는 주정뱅이의 신세로 전락했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한 ‘40명의 순교자’ 역을 개성 넘치게 연기함으로써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서사에 연극적 상상력을 불어넣었다.

‘네 번째 이야기-관리의 죽음’은 체홉이 모스크바대학 의학부 재학 시절에 생계를 위해 유머 주간지에 발표했던 300여 편의 콩트 중 하나이다. 회계원 체르바코프는 오페라 관람 도중 갑작스럽게 터진 재채기에 앞자리에 앉은 운수성 장군의 머리에 침이 튀었다고 생각하고는 용서를 구하지만 장군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물리친다. 그러나 장군이 용서해주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체르바코프는 거듭해서 집무실까지 찾아가서 사과를 올리려다가 그만 장군의 화를 복돋게 되고, 좌절된 채로 집에 돌아와서는 결국 사망에 이르

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최은영 연출은 이러한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를 잘 살려서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제정 말기 러시아의 사회적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전달해내었다. 아내 역할로 여장한 남자배우의 과장된 호들갑, 장군의 대머리를 부풀려서 부각시킨 고압적인 관료사회의 상징성, 그리고 소심한 회계사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표현한 복장이 터진 죽음 등을 통해 웃기면서도 슬픈 부조리극을 연출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다섯 번째 이야기-애수’는 26세의 체홉이 두 번째 객혈을 하던 해에 창작된 소설이다. 마부 이오나는 일주일 전에 아들을 잃었으나 그 누구도 그의 사연을 들어주지 않는다. 눈길을 헤치며 고단한 하루를 마친 이오나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슬픔으로 잠 못 이루다가 마구간을 찾아가 그의 늙은 말에게 이야기한다. 김동현 연출은 눈 내리는 무대 위에서 수북이 눈을 맞은 마차 속의 마부와 늙은 말을 느리게 움직이면서 아들을 잃은 마부의 슬픔을 서정적으로 재현해내었다. 그 개막 장면의 리듬과 분위기가 아름다웠다. 그러나 마부가 쌓인 눈을 떨구며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하는 순간 그 경이로웠던 느낌이 깨져버렸다. 극이 시작되면서부터 주인공이 울어버리면 관객은 느낄 틈이 없게 된다. 마부는 아들의 죽음 때문에 마차를 잘 몰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연출가는 단편이기에 생략해야했던 소설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듣는 사람은 기가 막혀 한숨을 내쉬며 슬프게 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 마부의 애끓는 사연을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던 점은 끝내 유감이다.

끝으로 말을 맺자면, 부산시립극단이 비록 외국의 고전이나마 여러 연출가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점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되도록이면 고전의 각색이나 재구성으로서가 아닌 ‘지금 여기’의 우수한 작품들을 공연하길 기대해본다.



관리의 죽음



애수



관객과의 대화

부산문화회관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46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일 시 | 11월 16일(월)-12월 5일(토) 전시실
문 의 | (사)부산미술협회 632-2400



역량 있는 예비 작가 발굴을 위한 제46회 부산미술대전 수상작전. 올해 부산미술대전 대상 수상자로는 서양화(구상) 부문 김정운, 공예 부문 홍민수, 디자인 부문 조연우, 서예 부문 김태주, 문인화 부문 이화영이 선정

됐다.

2020 부산미술대전은 지난해보다 200여 점이 증가한 총 1,399점이 출품됐으며 한국화, 서양화(구상/비구상),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판화,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총 10개 분야에서 대상 5점, 우수상 13점, 특별상 1점, 특선 109점, 입선 595점으로 723점이 선정됐다.

전시일정

11월 16일(월)-21일(토) 서양화·조각
11월 23일(월)-28일(토) 서예
11월 30일(월)-12월 5일(토) 문인화

부산시립무용단 제82회 정기공연 이정운 예술감독 취임공연 '소생(Regen)'

일 시 | 12월 4일 금요일 오후 8:00,
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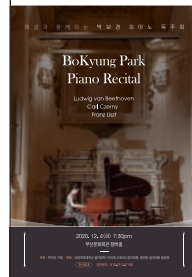


이정운 신임 예술감독 취임공연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무용단 제82회 정기공연 '소생(Regen)'. 취임공연으로 선보이는 '소생(Regen)'은 일상의 복원과 춤 소생을 그린 삶의 치유와 위로에 대한 창작무대로, 주도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최근 영화 '기생충' 음악으로 또 한차례 이름을 알린 뮤지션 정재일과 이아람이 구성, 작곡을 맡아 작품의 깊이를 더한다.

• 연출, 안무/이정운

해설과 함께하는 박보경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2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무지카 기획 010-2110-2106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피아노에 대한 열정으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도미,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석사, 맨해튼 음악학교에서 최고연주자 과정, 애리조나대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연주

학 박사를 취득한 피아니스트 박보경의 해설과 함께하는 피아노 독주회.

박보경은 음악저널, 음악춘추 등 국내 다수의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Lois Trester Competition, Green Valley Piano Competition에서 준우승과 청중상을 수상했으며, KUAT 클래식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섬세한 터치와 파워풀한 연주'로 호평 받았다.

박보경은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예고 등에서 외래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세계 민요와 가곡의 향연

일 시 | 12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
(예매 시 50% 할인)
문 의 | (사)아지무스오페라단 010-8520-4649



세계 각국의 민요와 가곡 중 명곡만을 선정,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안무와 연기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세계 민요와 가곡의 향연'.

소프라노 왕기현, 박보희, 박지은, 손유경, 김민성, 김소라, 김선미, 테너 서치

환, 신대현, 바리톤 윤풍원, 베이스 박순기가 출연, 코로나19에 지친 관객들과 함께 즐거운 음악 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런던다리, 노래는 즐겁구나, 즐거운 여행자, 그리운 금강산, 뱃노래, 내 마음의 강물, 남아당자강(男兒當自強), 본세아바, 눈 등 수록
• 피아노/최승희

김유빈 피아노 리사이틀 그 겨울의 낭만

일 시 | 12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도독,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 아음(A-eum) 트리오 멤버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유빈 독주회.

김유빈은 2018 Napoli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1위 입상, 제18회 Pietro Argento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3위에 입상했으며 금호 영 아티스트에 선정되어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가지기도 했다.

2019년 5월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김유빈은 이번 무대에서 대표적인 낭만파 작곡가인 쇼팽과 슈만의 곡을 들려준다.

강주희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 12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파워풀한 소리, 세련된 무대 매너와 에너지'로 호평받고 있는 플루티스트 강주희 리사이틀.

연세대학교를 수석 입학 및 졸업하고 도미, 맨해튼 음대에서 석사, 보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강주희는 일찍이 국

내외 콩쿠르에서 수차례 입상하여 그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독주회 및 앙상블 무대를 가져오며 활동의 폭을 넓혀오고 있다.

현재 앙상블 소내 음악감독, 보스턴 필하모니아 수석으로 있는 강주희는 경성대학교 겸임교수, 인제대학교 및 동 대학원, 선화예술·고, 부산예고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플루트/오신정 • 피아노/이은정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재즈가 되다 바리톤 이응광

일 시 |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의 특별한 브랜드 공연 '마티네 콘서트' 마지막 무대. SBS 간판 아나운서이자 클래식 애호가인 박찬민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스위스의 보석' 바리톤 이응광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오페라, 재즈가 되다'라는 거슈윈의 첫 번째 재즈 오페라 '포기와 베스'를 비롯해 오페라 아리아와 재즈감이 묻어나는 다양한 곡을 만날 수 있다. 유럽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해 온 바리톤 이응광은 스위스 바젤 오페라극장의 전속가수로 캐스팅되어 유럽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했으며, 현재는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소프라노/구민영 • 피아노/이소영

바리톤 김태우 두 번째 콘서트

일 시 | 12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아트락 702-0913



꿈을 향해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바리톤 김태우의 두 번째 독주회. 영남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부민교회 시온찬양대 지휘자로 있는 김태우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 및 솔로이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몽환적인 피아노 선율에 감미로운 노래 가사로 슈만의 연가곡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 전곡 무대에 이어 가곡 및 가요, 팝송 등 다양한 곡으로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

- 피아노/김민선
- 소프라노/김은지 • 퍼쿠션/김인수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일 시 | 12월 9일 수요일 오후 9: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기존 공연시간의 틀을 깨져 저녁 9시, 실험적인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을 새로운 음악세계로 안내하는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심야음악회'는 쉽게 접할 수 없어 낯설 수밖에 없었던 현대음악을 소개하는 특별한 자리로, 한밤의 낭만과 실험적인 현대음악이 빛어내는 특별한 감상을 경험할 수 있다. 올해 무대에서는 이만형 부지휘자의 지휘로 부산 출신의 대표 작곡가인 정수란의 신작 '탈춤과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인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을 통해 섬세한 표현력과 진잔한 감동을 전하는 현악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만날 수 있다.

김은정 피아노 독주회 Prelude

일 시 | 12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현재 Cincy-A 피아노 트리오 멤버, 연주단체 스테이플러스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은정 독주회. 부산예고 재학 중 도독,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신시내티 음악대학에서 최고연주자과정 및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은정은 전 세계 각지에서의 연주를 통해 피아니스트로 발돋움했으며, 2014년 귀국독주회 이후 국내에서 독주 및 실내악, 협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와 라흐마니노프, 쇼팽의 프렐류드를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일 시 |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유니타이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베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고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해설, UKO오케스트라, 부산오페라합창단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실력있는 성악가들이 출연, 1부 '고난과 위로', 2부 '소망과 사랑'이라는 테마로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박은주, 김유진, 정혜민, 왕수정
- 테너/조윤환, 허동권, 이태홍
- 바리톤/이광근, 안세범 • 베이스/구분수

제1234회 MBC 목요일음악회 부산성악가협회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부산성악가협회 010-7767-4390

2020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목소리로 희망과 따뜻함을 전할 제1234회 MBC 목요일음악회 '부산성악가협회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실력있는 성악가들이 출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송년무대에 어울리는 우리 귀에 친숙한 팝송과 유명 뮤지컬 넘버, 그리고 크리스마스 메들리를 통해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2020 부산문화 송년음악회 Classic & Cross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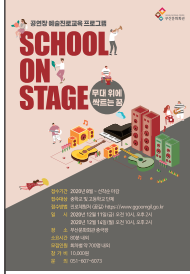
일 시 |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클래식 공연 기획사인 부산문화가 2020년을 마무리하며 마련하는 송년무대. 클래식과 크로스오버가 함께하는 무대로, 1부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한동일, 이해은, 소프라노 박현진,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이광근이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유명 아리아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을, 2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들이 주축이 된 코리아 브라시0의 비틀즈, 퀸의 메들리곡에 이어 우리가 곡과 뮤지컬 '캣츠' OST를 들려준다. 지난 1965년 레벤트리트 국제콩쿠르 우승을 통해 한국인 최초로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 한동일은 그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연장 예술진로교육 프로그램 스쿨 온 스테이지(School On Stage)

일 시 | 12월 11일(금), 14일(월) 오전 10:00
오후 2: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고등학교 단체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73



(재)부산문화회관이 청소년들의 예술진로교육을 위해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 '스쿨 온 스테이지(School On Stage)'. 이날 무대에서는 생텍쥐페리 원작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극단 등 다섯 개 시립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스쿨 온 스테이지'는 공연관람은 물론 예술가, 연출가, 무대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등 하나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작품에 참여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진로교육과 공연관람 에티켓 등 문화소양 교육이 결합된 프로그램이다.

심하정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심하정 010-3284-9428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 뉴욕주립대학교 석사 및 연주자과정, 렉걸스, 뉴저지주립대학교 박사 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심하정 독주회.

American Protege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1등 상을 수상한 심하정은 뉴욕주립대 반주전담 외래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남대학교,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캠브/플루트 소나타를 위한 시칠리아노 제 2번 BWV. 1031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17번 작품 31-2 '템페스트'
브람스/피아노 소나타 제3번 올림바단조 작품 2

나눔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The Magic Flute

일 시 |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나눔플루트앙상블 010-9371-8987

젊고 실력 있는 차세대 플루티스트들로 구성된 나눔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나눔플루트앙상블은 창단 후 국내외 초연작과 다양한 플루트 콰이어 작품들로 참신하고 획기적인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에서 초연되는 현대곡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대기법을 사용하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소리의 조합과 음악을 선보인다.



제13회 오퍼스피스트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오퍼스피스트 010-8338-7375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권혜령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오퍼스피스트의 13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솔로 및 듀오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A. 디아벨리/소나티네 작품 168 제3번 3악장 '론도'
드뷔시/네 손을 위한 작은 모음곡
베토벤/6개의 변주곡 바장조 작품 34
거슈윈/네 손을 위한 랩소디 인 블루 등
• 출연/정이든, 최서희&최지현, 권혜령, 정선아&박소진, 양진경&최조은, 강용우, 시명진&박혜라, 정은혜&강한솔

나눔행복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나눔행복합창단 525-9100



부산와인스쿨 총동문회 원우들로 구성된 아마추어합창단인 나눔행복합창단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나눔행복합창단은 지난 2017년 10월 25일 창단식을 가진 후 이듬해인 2018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보졸레누

보 페스티벌, 부산와인스쿨 와인페스티벌, 나눔봉사활동 및 공연, 부산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권영기 • 반주/김경미
- 단장/최옥석 • 사회/고태연
- 특별출연/헤븐싱어즈, 소프라노 김리라, 퍼쿠셔니스트 이영훈

무지카비바 앙상블 제30회 정기연주회 12월의 베토벤

일 시 |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무지카비바 앙상블 010-4502-1005



지난 1998년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결성된 후 파워풀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무지카비바 앙상블 정기연주회. 무지카비바 앙상블은 특히 지난 2019년 9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종

국제음악제에 초청받아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갖는 등 대한민국 독립에 관한 음악과 메시지를 전하는 연주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전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교향곡 제7번을 현악앙상블로 편곡한 곡을 비롯해 작곡가 조희주의 '관악 합주를 위한 3 부분의 인상 2020', 그리고 르로이 앤더슨의 '캐럴 모음곡',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송년에 어울리는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김영수 • 해설, 첼로/전명희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 III 춤 훨훨날다

일 시 |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체육무용과 850-3261, asp.bwc.ac.kr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체육무용과 교수들과 학생들의 합동무대로 마련되는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 세 번째 무대 '춤 훨훨날다'. 매년 춤아카데미의 정체성 확립과 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장

으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부산여자대학교는 올해 무대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감동이 있는 무대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에게 춤예술을 통한 삶의 활력을 전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역사회 공연예술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진구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 연출, 예술감독/김해성(학과장)
• 안무, 출연/김옥련, 김한동, 김선영, 서덕구, 이연주, 김지현, 김유진 외
• 객원출연/부산고분도리걸립매

부산시립합창단 제181회 정기연주회 2020 송년힐링콘서트

일 시 |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오는 해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한 송년무대 '2020 송년힐링콘서트'. 수석지휘자 이기선의 지휘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오페라 아리아, 크리스마스 캐롤 모

음곡으로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를 날려버린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자주 불리는 캐롤과 미국 오케스트라 경음악의 거장 르로이 앤더슨이 메들리로 엮은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부산시립합창단의 경쾌한 앙상블로 들려준다.
• 지휘/이기선 • 소프라노/오신영
• 피아노/하수원 • 클래식기타/김경태
• 연주/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 시리즈 VI Happy Birthday! Beethoven

일 시 |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클래식 음악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 손혜림, 비올리스트 강수이, 첼리스트 김혜지로 구성된 에델현악사중주단의 무대.

에델현악사중주단은 지난 해 12월, '어디선가 들어본 클래식 춤곡'이라는 주제로 을숙도문화회관 '해피콘서트'를 통해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는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 시리즈 여섯 번째 무대로, 베토벤의 생일이기도 한 12월 17일 베토벤 현악사중주 제15번과 베토벤의 마지막 작품인 제16번을 들려준다.

Beethoven Plus IV / Again, R. Straus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0회 정기연주회 부산MBC와 함께하는 부산시향의 베토벤 플러스

일 시 |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프랑스의 작가 로망 롤랑이 '걸작의 숲'이라고 부를 만큼 베토벤 제2기의 정점을 형성한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

제'와 미국 현대음악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찰스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 그리고 지난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을 완주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올해부터 선보이는 장기 프로젝트 'Again, R. Strauss' 첫 무대인 '죽음과 정화'를 들려준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 Unplugged

일 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7



코로나19로 차분한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연말을 보낼 가족들을 위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마련하는 특별한 음악선물 'Santa, Jazz & Unplugged'. 수석지휘자 김수현이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정, 피아니스트 유영

욱, 엘렉톤 연주자 김희은, 드럼주자 김영훈, 베이스리스트 전영주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흥겨운 재즈와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관객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첫 곡으로 밥 칠콧(Bob Chilcott)의 로맨틱한 재즈미사곡인 'Nidaros Jazz Mass'를 소년소녀합창단의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다.

• 지휘/김수현 • 연출/최현욱

베이스 김태형 독창회 시, 사랑, 나의 노래

일 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태형 010-2339-1973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G. MARTUCCI' 국립 음악원,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성악 최고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창작가곡협회 부회장, 부산우리가곡연주협회 음악감독으로 있는

베이스 김태형 독창회. 김태형은 Renata Tebaldi 국제 콩쿠르를 비롯 수차례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2002년부터 3년간 이탈리아 San Pietro 극장 전속가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동안 독창회 10회를 비롯해 다수의 오케스트라 협연 및 500여 회 이상 무대에 서온 김태형은 이번 무대에서 시, 사랑, 나의 노래라는 주제로 그가 평소 아끼고 즐겨부르던 우리 가곡을 들려준다.

- 반주/박윤정 • 게스트/벨라싱어즈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일 시 | 12월 20일 일요일 오후 3: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매일음악 010-4010-6909
maeilmusic2@gmail.com



기존의 딱딱한 클래식 음악단체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어법과 색깔을 찾고자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매일음악'의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 각국 8개 나라를 선정,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이미지

와 분위기에 걸맞는 기존의 클래식 음악 3곡과 창작곡 6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청중들이 마치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각 나라에 대한 설명과 작품의 연주 및 해설을 진행한다.

- 기획, 작곡/홍수민 • 연출/이정민
- 진행/김나현
- 무용/김희영 • 성악/오예은
- 바이올린/권순지 • 첼로/정지은
- 퍼커션/송민서 • 피아노/장유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4회 정기연주회 Travel(여행)

일 시 |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8



저물어가는 2020년을 보내며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기 위한 음악여행을 떠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4회 정기연주회 'Travel(여행)'.

이명근 수석지휘자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 작곡가 존 애덤스,

아론 코플랜드의 곡을 비롯해 소프라노 이정은, 테너 황병규, 바리톤 신병규가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로 올해보다 나를 2021년을 기다리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 프로그램**
존 애덤스/질주 속에서의 짧은 탐승
아론 코플랜드/애팔래치아의 봄
레하르/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당신은 내 마음의 모든 것' 등 수록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8회 정기연주회 2020 경자년(庚子年)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신명 넘치는 우리 음악으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8회 정기연주회 '2020 경자년(庚子年) 송년음악회'.

김정수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 창작국악의 대표적 작곡가로 평가받는 **이준호** 작곡가의 대표곡을 관현악 앙상블로 새롭게 창작한 'Memorial songs'을 비롯해 다양한 창작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지휘/김정수 • 사회/백규진
- 협연/정은경(엘토), 고연정(가야금), 국악전문단체 '타로', 정선희·정효선(이상 판소리), 부산시립합창단

바리톤 김경한 독창회

일 시 |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김경한 010-9907-8031



동의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양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리톤 김경한 독창회. 제23회 한국음악교육협회 콩쿠르 1위, 제68회 음악교육연구회 콩쿠르 1위에 입상한 바 있는 김경한은 그동안 을숙도 대학가

곡제, 2018 부산음악축제 신인음악회에 출연했으며, '라보엠', '라 트라비아타',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 오페라 및 뮤지컬 '렌트', 'All Shook up' 주역으로 무대에 섰다.

JTBC 팬텀싱어 3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김경한은 현재 동의대학교 동 대학원 음악과에 재학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말러의 '젊은 날의 가곡과 노래집',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에 수록된 가곡을 비롯해 한국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부산내셔널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5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010-2752-9923



지난 2007년 창단된 후 민간 오케스트라로서 열정과 도전의식을 가진 지휘자를 중심으로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음악인들과 함께 뜻을 모아 활동하고 있는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참신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청중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제주로부터 부산까지 오늘도 바다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녀들의 강인함을 그린 정승원 곡 '관현악을 위한 숨비소리'를 비롯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3번과 교향곡 제6번 '전원'을 들려준다.

- 지휘/손명균 • 피아노/이기정

오페라 '라보엠'

일 시 |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7:00
27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12/10까지
예매 시 1인 2매 30% 할인)
문 의 | 오페라단 나눔 611-0132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오페라단 나눔이 선보이는 푸치니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오페라 '라보엠'.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실력있는 유명 성악가들이 출연, 두 젊은 남녀의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사랑이야기를 들려준다.

- 예술총감독/이철성 • 연출/기민정
- 출연/양승엽, 장지현, 구민영, 왕기현, 황성아, 김수연, 고영호, 정승화, 유용준, 김우주, 박상진, 박순기, 정승훈
- 연주/KNN방송교향악단
- 합창/부산오페라합창단, 센텀오페라합창단, 햇살나무어린이합창단

이강현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실력과 첼리스트 이강현 독주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한 이강현은 2018년 독일 크론베르크에서 열린 첼로 마스터클래스에 참가, 거장 프란츠 헬머슨에게 추천받아 장학금을 수상, 2019년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페스티벌, 2020년 첼로 마스터클래스 전액 장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받기도 했다.

이강현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젊은 첼리스트 고티에 카푸송과 루이비통 재단이 주최하는 'Classe d'Excellence de Violoncelle' 시즌 2018/2019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어 '루비통재단'에서 마스터클래스 및 연주활동을 펼친 바 있다.

- 피아노/박재홍 • 첼로/정우찬

하지원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2월 27일 일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하지원 010-4577-6001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도미, 뉴욕 주립대학교 석사 및 아티스트 디플로마,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하지원 독주회.

2015 American Protege 국제콩쿠르에서 2위 입

상하여 카네기 홀에서 뉴욕 데뷔 무대를, 2019년 제7회 뉴욕아티스트 국제콩쿠르에서 3위 입상하여 뉴욕 링컨센터에서 우승자 리사이틀을 가진 하지원은 특히 2015년 뉴욕 Max and Nadia Shepard Recital Hall에서의 리사이틀을 통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토라제로부터 '정확한 악보 해석을 바탕으로 둔 탄탄한 해석을 가진 연주'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작품 2 제2번
프랑크/프렐류드, 푸가와 변주곡
스크리아빈/에튀드 작품 2 제1번 등

브로드웨이 뮤지컬 콘서트

일 시 |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
(예매 시 코로나 극복 50% 특별할인)
문 의 | (사)아자무소오페라단 010-8520-4649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한 송년무대. 소프라노 왕기현, 손유경, 김달의, 테너 백예훈, 김지현, 바리톤 김경한 등 실력있는 성악가들이 출연, 주옥 같은 브로드웨이 정통뮤지컬 넘버만을 엄선해 음악을 통한 위로의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010-7677-2447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나눔과 배려를 익히고 있는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의 18번째 정기연주회.

매주 일요일마다 정기적인 연습과 여름, 겨울음악 캠프를 통해 음악적 기량을 쌓아온 아코르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2년 9월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프로그램

- 비제/오페라 '카르멘' 모음곡
- 크라이슬러/서주와 알레그로
- 쉴버그/뮤지컬 '레 미제라블' 모음곡 등
- 지휘/박진
- 협연/구영현(바이올린), 조몽주(바이올린)

그라베앙상블 창단연주회

일 시 |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그라베앙상블 612-9764,
010-9340-9521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악가들로 구성된 그라베앙상블 창단연주회.

현악뿐 아니라 관현악, 건반악기 등 다채로운 조합의 무대를 통해 관객에게 클래식인 '따분하고 지루한 음악'이 아닌 '흥미롭고 재미있는 음악'임을 알리고자 창단한 그라베앙상블은 이번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팀명인 '그라베(Grave)'는 음악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지시어 중 '장중하고 느리게'라는 뜻.

프로그램

- 모차르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K.423
- 모차르트/플루트사중주 K.285
- 쿨라우/피아노와 첼로, 플루트를 위한 대삼중주 작품 119
- 슈만/피아노사중주 작품 47

부산시민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0 제야음악회

일 시 |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매년 마지막 제야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새해를 맞는 (재)부산문화회관만의 특별한 무대 '2020 제야음악회'.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광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TBN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손지현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신창용, 소프라노 손지수, 테너 김승직이 출연,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코로나19로 여느 해보다 유난히 힘들고 길었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는 희망과 감동의 순간을 가까이 지인, 가족들과 함께 느껴볼 수 있다.

EBS 번개맨 20주년 기념대작
뮤지컬 번개맨

일 시 | 12월 12일-1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문 의 | (주)하늘이엔티 1688-6675



EBS를 대표하는 어린이들의 영원한 히어로 '번개맨' 탄생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어린이 뮤지컬 '번개맨'.
번개맨처럼 착하고 용감한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번개수업이 열리는 조이랜드 번개타운. 아이들이 꼬마 번개맨으로 커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악당 나잘란과 더잘난은 번개맨에 대적할 악당 검은 번개맨을 만들어내는데... 번개맨처럼 강해지고 싶은 마음 착한 친구 오기와 번개맨은 과연 검은 번개맨에 맞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특히 이번 무대는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스펙터클한 무대와 입체영상, 놀라운 특수효과, 재미와 감동, 교훈까지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거리두기좌석제 콘서트
이십세기 이승환 +

일 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20일 일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4만3천원, S석 13만2천원
A석 12만1천원
문 의 | (주)하늘이엔티 1688-6675



1989년 1집 'B.C 603'로 데뷔, 지난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이승환이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마련하는 부산콘서트.
발라드부터 록까지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라이브 역량을 지닌 이승환은 해마다 다양한 브랜드 콘서트를 기획해 1,000회가 넘는 공연을 개최, 창의적인 연출과 다채로운 퍼포먼스, 압도적인 가창력이 어우러진 무대로 '공연의 산'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지난해 6월 '라스트 빠데이-괴물' 콘서트에서는 게스트 없이 93곡에 달하는 라이브 무대를 단독으로 소화하며 9시간 30분이라는 국내 최장 공연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0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선정작 2020 영도다리연가

일 시 |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 의 | 민요그룹 흥 503-9501



부산문화재단이 주최한 올해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2020 영도다리연가'.
연출가 곽은진이 연출한 '영도다리연가'는 부산의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영도다리를 배경으로, 영도 다리 밑에서 점집을 하는 할머니 만금네와 소녀 금순의 이야기를 통해 영도다리가 품고 있는 피란민의 애환과 희망을 표현한 국악뮤지컬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장르적 특성을 벗어나 전통음악과 대중음악, 연극, 무용 등 총체적이고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종합예술극으로, 창극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뮤지컬을 더하고 여기에 전통적인 색채를 입혔다.

- 연출/곽은진 • 작/김익현
- 작곡/변재벽 • 안무/신윤경

부산문화재단 2020 청년문화육성지원사업
이유나 두 번째 독창회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일 시 | 12월 20일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문 의 | 이유나 010-6523-3719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이자 국악연주단 '정음' 단원, 앙상블 '풍류365' 동인으로 활동중인 소리꾼 이유나의 무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유나는 이번 무대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가곡을 비롯해 가사, 시조 등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한 장르인 '정가'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정가의 매력을 전하는 자리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과 함께 진행된다.

부산시민회관 뮤지컬 명작극장
맘마미아

일 시 | 12월 25일 금요일 오후 7:00 **연회실**
입장료 | 무료(사전 예매)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부산시민회관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문화로데이'를 맞아 마련하는 뮤지컬 명작극장 12월 상영회.
부산시민회관이 올해 '문화로데이'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뮤지컬 명작극장'은 영화의 도시 부산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시민 친화적인 공연장으로서의 부산시민회관의 특성화와 관객개발을 위해 뮤지컬 'Big 4'를 포함한 명작 뮤지컬영화 7편으로 구성했다.
'뮤지컬 명작극장' 마지막 상영작 '맘마미아'는 전설적 그룹 아바(ABBA)의 노래를 엮어 만든 뮤지컬로, 2008년 할리우드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음악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5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일 화요일 오후 6:00, 7:4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6563-6692



지난 1996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매년 두 차례 피아노페스티벌과 우수 신인 피아노 콩쿠르 등을 가져오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2020년 정기연주회.

오후 6:00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연주회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무대로, 베토벤의 가장 대중적인 명작 '월광 소나타'를 비롯하여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일생을 피아노 선율로 통해 들려준다.

오후 7:40 Piano Odyssey

예술가로서 삶의 여정을 피아노 선율로 표현하는 무대로, 24명의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고전시대, 낭만시대의 작품들과 함께 현대적 감각의 표현기법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국립부산국악원 수요공감

일 시 | 12월 2일(수), 9일(수)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다양한 예술인과 함께 하는 우리 문화의 장으로 사랑받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수요공감.

2일 풍물굿패 소리결 '경상풍류慶尙風流'

풍물굿과 사물놀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풍물굿패 소리결의 무대. 풍물굿패 소리결은 그동안 북춤 100인무, 소극장 사물놀이 공연 '나는 너를 보며 깊어진다네', 창작판굿 '세월을 넘은 길곳', 독일 톨부트 축제 초청공연, 조선통신사축제 개막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신명넘치는 무대를 선사해왔다.

9일 주윤정 거문고 독주회 '아름답게, 고이 담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서울대학교 음악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한국거문고양상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윤정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정대석씨 거문고산조를 들려준다.

제76회 을숙도명품콘서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일 시 | 12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인터파크 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올해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바로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리즈 음악회로 진행되어온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2020년 마지막 무대.

경북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중국 텐진시포니오케스트라 수석객원지휘자로 있는 동의대학교 백진현 교수가 지휘하고 부산로알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혁명교향곡이라고도 불리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과 러시아 10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작곡한 '혁명적 서곡'을 들려준다.

• 협연/소프라노 이윤경, 바리톤 허중훈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화통콘서트

일 시 | 12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옛 그림과 우리 음악이 어우러진 이색 콘서트 '화통콘서트'.

지난 2011년 초연된 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화통콘서트'는 문화예술 감성단체 '여민이' 탄생시킨 이색 인문학 콘서트로, 옛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

기를 영상과 국악, 춤, 소리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올해 무대에서는 '동물은 노래하고 꽃들은 춤추네', '봄날의 상사는 말려도 핀다' 등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 김홍도의 '황묘농집(黃猫弄蝶·노란 고양이 나비를 놀리다)', 신윤복의 '연소담청', '월하정인' 등 옛 그림과 그에 어울리는 국악 창작곡을 미술평론가 손철주의 맛깔스런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안숙선·유지숙·남상일·박애리와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화통콘서트

일 시 | 12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1-4



판소리 '수궁가'로 즐기는 신명나는 콘서트 창곡 '토선생 용궁가'.

'안숙선의 토선생 용궁가'는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 가을축제에서 극찬을 받은 '수궁가' 입체창 공연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문화예

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사업에 선정되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이 시대 최고의 명창 안숙선과 서도소리의 명인 유지숙, 남상일, 박애리 등 국악계 최고의 스타 4인이 펼치는 이번 무대는 서도소리로 듣는 용왕의 병을 구원하는 굿소리, 토끼가 수궁으로 향할 때 부르는 뱃노래, 25현 가야금병창으로 듣는 수궁풍류의 다양한 노래들과 남도 굿거리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즐길 수 있다.

안은지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12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안은지 010-5577-3902



경원대학교 음악대학(현 가천대학교)을 졸업하고 도미, 매네스 음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이올리니스트 안은지 독주회.

지난 2015년 귀국 후 네 차례 독주회를 통해 관객들과 지속적으로 음악적 교감을 이어오고 있는 안은지는 현재 실내악 그룹 'The Blossom' 멤버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시대에 활동하며 음악적 교감을 나누었던 슈만과 브람스의 작품을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피아노/심하정

스페이스 음 12월 음악회

일 시 | 4일(금), 11일(금), 12일(토), 18일(금),
24일(금) 스페이스 음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



4일(제404회) 오후 8:00 스피렌
데라 앙상블

포항시립교향악단 부수석 단원, 코리아뮤직앙상블 챔버 단원, 스트라이더 앙상블 리더, 인어스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남가영,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앙상블 ART-O, Die Solisten 멤버로 있는 비올리스트 윤솔샘, 투첼리스트, 클라세파르렛, 필조이트리오 멤버로 있는 첼리스트 신윤경, 음악당라운 전속연주자, 친친탱고 피아니스트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안나로 구성된 스피렌데라 앙상블(Splendera Ensemble)의 무대.

프로그램

슈베르트/현악3중주 D.471
바흐/골드베르크 변주곡



라흐마니노프/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피아졸라/오블리비언, 리베르탱고
브람스/피아노4중주 제1번 작품 25

11일(제405회) 오후 8:00 앙상블 멜랑제 창단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수석 김영준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황어진, 부산시
립교향악단 플루트 부수석 이주형, 금호 영 아
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미국 USC 대
학원 연주자과정에서 재학 중인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 Vienna Grand Prize Virtuoso 국제 음
악 콩쿠르 1위, IMKA 국제음악 콩쿠르 2위 입상
한 피아니스트 이윤지로 구성된 앙상블 멜랑제
(Ensemble Melanger)의 창단무대.

프로그램

베토벤/플루트와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세레
나데 작품 25

미요/클라리넷과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모음
곡 작품 157b

무진스키/플루트와 클라리넷을 위한 듀오

브루흐/클라리넷과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Acht
Stucke

12일(제406회) 오전 11:30 어린이를 위한 가족
클래식극 '하이브리드 클래식'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등 유명 작곡가들의 삶
과 작품세계를 어린이들도 알기 쉽도록 특별 제
작한 가족 클래식극 '하이브리드 클래식'.

- 소프라노/노주은
- 동화구연/이숙정
- 작곡 및 피아노/박정현
- 피아노/민주신
- 드럼/박진성
- 테너/염상운
- 편곡/최석중
- 콘트라베이스/황대웅
- 더빙/손효정

18일(제407회) 오후 8:00 예술기획 나빌레라
의 열 아홉 번째 이야기 사랑방



24일(제408회) 오후 8:00
소리 숲 크리스마스 이브
감사感謝 콘서트

지난 2014년 9월, 우리나라 피리박사 1호 김지운을 주축으로 실력을 겸비한 예술가들로 창단한 소리연구회 소리 숲의 무대.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클래식음악을 비롯한 여러 장르의 음악을 소리 숲만의 맑고 깊은 소리로 표현해온 소리 숲은 기존의 국악연주 형태의 틀을 과감히 깬 새로운 콘텐츠로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한국평론가협회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피리/김지운(대표)
- 바이올린/김은정
- 클라리넷/유지훈
- 소프라노/김현애
- 피아노/이진성

자원봉사자 초청 위로 음악회 동행II '위로와 위안'

일 시 | 12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대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초대(부산자원봉사포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신청)

문의 | 부산자원봉사포럼 010-2026-8280

...



(사)부산자원봉사포럼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자원봉사자 초청 위로 음악회 '동행II'.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윈드 오케스트라와 부산

의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금, 의료진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고 모두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힐링음악회를 선사한다.

- 지휘 및 해설/정두환
- 소프라노/양기현
- 테너/양승엽
- 앙상블/타악기 앙상블 '예술(지휘/이재복)

두실예술문화축제

일 시 | 12월 4일 금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두실초등학교 580-0400,
010-8559-7519

...

두실초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두실 수피아 오케스트라와 두실 꿈소리 합창단이 함께하는 두실예술문화축제.

음악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바른 심성을 기르고자 지난 2011년 창단된 두실 수피아 오케스트라는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켜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두실 꿈소리 합창단과 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앙상블 무대가 펼쳐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수피아 오케스트라와 중창단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부산국악원 명품레퍼토리 토요신명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26일 공연 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토요상설무대 '토요신명'.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무용단이 출연하는 '토요신명'에서는 매주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과 우리 춤의 멋스러움을 관객

들에게 선사한다.

5일 종묘제례악 '전폐회문', 포구락, 현악 취타, 진쇠춤, 판소리, 버나와 재담

12일 보허자, 처용무, 경기 영남민요, 천년만세, 부채춤, 사물판굿

19일 대취타, 장구춤, 거문고2중주 '유현의 춤', 동래학춤/한량무, 동해안무속장구가락, 강강술래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제23회 정기연주회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

일 시 | 12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부산클라리넷콰이어 010-8007-8087



지난 1989년 당시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이었던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관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창단한 부산클라리넷콰이어의 무대.

부산클라리넷콰이어는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음악의 생활화와 정서함양에 기여해왔으며 클라리넷 연구회를 만들어 후진양성을 하는 한편, 부산아마추어 클라리넷양상블을 창단, 연주자들이 클라리넷과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왔다.

정우영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한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한다.

- 클라리넷/황윤원, 백동훈
- 바셋호른/권진우

첼리스트 이정란x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일 시 | 12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인터파크 예매 시 20% 할인)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저물어가는 2020년을 마무리하며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절실한 이 시대, 깊고 따뜻한 첼로 음색으로 브람스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첼리스트 이정란의 무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우아하고 감각적인 연주로 사랑받고 있는 첼리스트 이정란은 특히 학구적이면서도 설득력 높은 프로그램 구성과 음악에 대한 애정이 깊이 배어나는 독주 무대로 호평 받아 왔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이정란과 탁월한 호흡을 자랑하는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가 함께 브람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번'을 들려준다.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국악전공 제15회 정기연주회 동의新풍류 '夢'

일 시 | 12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892-2411-2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국악전공자들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동의新풍류'.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009년 국악전공을 신설한 후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하며 국악인재 육성 및 한국음악발전에 힘써오고 있다.

'夢(꿈)'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의 새로운 꿈, 연주자로서의 꿈을 담은 국악 창작곡으로 열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창작음악 '고구려의 훈', 잡가와 국악관현악 '제비가', 해금협주곡 '해금탱고를 위한 Dance of the moonlight',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자룡, 만경창파를 가르다', 대금협주곡 '비류'

- 지휘/엄익준 • 해설/신호수

제9회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정기연주회 멋쟁이 아줌마들

일 시 | 12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010-9944-8825



하모니카 신인 연주자를 발굴하고 강사를 육성하는 한편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하모니카 대중화에 앞장서 온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하모니카 독주를 비롯해 앙상블, 오케스트라 등 하모니카의 매력을 전하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 회장/박기국
- 연주/김상수, 이성숙, 박현애, 고옥순, 장영진, 반정란(독주), 라온제나하모니카앙상블, 하모나이즈앙상블(중주),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 마린하모니카오케스트라, 남가람앙상블, 창원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오케스트라)

피아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베토벤 피아니즘의 향연

일 시 | 12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피아스트라 010-9395-2011



비중있는 클래식 레퍼토리를 '피아니즘(pianism)의 향연'만으로 현대 피아노음악의 새로운 정신을 제시해 온 피아스트라 (piastra)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 12명이 출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비롯해 피아노 듀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피아노 8Hands로 편곡하여 들려주며, 특히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8번은 동의대학교 백재진, 이동섭 교수의 앙상블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피아노/박주미, 김혜미, 석주안, 백승석, 김미현, 신지은, 노지영, 배주연, 임주아, 심정연, 김민자, 권경미
- 퍼쿠션/서지형

제8회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부부음악회 가톨릭 성가의 밤

일 시 | 12월 8일 화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동의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성악과, 이태리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를 졸업한 신정순은 이태리 G. Poggi 장학금 공쿠르 우승 및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서울바로크와 현대가곡 연구회 회원, 대구음협 회원, 남산성당 로사리오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동의대학교와 이태리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 및 조교과정, 로마 A. I. ART 아카데미 합창지휘과, 'Orfeo Academia' 오페라과를 졸업한 고봉수는 현재 M&M 성악연구회, 부산 우리가곡부르기 회장, 해운대 노노합창단, 장산 청춘합창단, 거제동성당 글로리아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2020 을숙도 해피콘서트

일 시 | 12월 8일-11일 화-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을숙도문화회관이 매년 클래식 입문자들을 위해 마련해온 을숙도 해피콘서트 2020년 무대.

첫날인 8일 클라보체 남성앙상블을 시작으로 나흘간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연주팀이 출연해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퓨전국악, 가요, 영화OST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8일 클라보체 남성앙상블 '즐거운노래 멋진 인생'

9일 퓨전국악앙상블 '감성 토크! talk! 콘서트'

10일 오네스토뮤직앙상블 '감동과 기쁨의 힐링 콘서트'

11일 에델현악사중주단 '추억의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제8회 전은지's Project Ensemble Flute's 정기연주회 라틴음악, 클래식을 만나다

일 시 |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Project Ensemble Flute's 010-5327-6025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초빙교수,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 부산 예술 중고등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전은지를 리더로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앙상블 헤세드, 클레다 현악사중주 멤버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서영희, 앙상블 The Blossom, SOMBI Trio, 앙상블 Art-O 멤버로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민,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삼மிழ희자, 폴리포니 기타듀오 멤버로 있는 기타리스트 김경태, 숨니움 앙상블·트리오 리더, 앙상블 누, 앙상블 툰 멤버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혜경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앙상블 Flute'z의 무대.

플루트와 기타가 어우러지는 듀오무대에 이어 실내악곡으로 편곡된 피아졸라의 곡을 들려준다.

2020 부산현대음악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현대음악앙상블 010-9928-3733



부산지역의 현대음악 활성화와 수준 높은 연주를 목표로 지난 2008년 작곡가 이규봉을 예술감독으로 부산지역의 젊은 전문연주자를 중심으로 창단한 부산현대음악앙상블 2020년 정기연주회.

부산현대음악앙상블은 특히 창작작품의 초연을 통해 음악의 지평을 넓혀며 작곡과 청중을 연결하는 '소통과 공감의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음악 작곡가인 구바이들리나를 비롯해 폴랑크, 이만방, 정수란, 야나첵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바이올린/강고은, 고아라
- 비올라/유정주 • 첼로/곽대희
- 플루트/장예지 • 클라리넷/황남용
- 피아노/김진희, 강대현

2020 키즈워크 '엄(마의) 선(택)된 음악회' 上上음악회 '잼스틱'

일 시 |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3: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온 가족을 위한 화려한 퍼포먼스와 즐거운 두드림 '잼스틱'.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꿈꾸는 클래식 타악 및 피아노 전공자로 구성된 예술단체인 '잼스틱'의 이번 무대는 현대적인 악기인 마림바, 실로폰, 마칭악기 등 화려한 타악 리듬과 밴드 음악의 퍼포먼스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객이 연주자로 참여하여 눈과 귀, 마음을 사로잡는 오감만족 공연을 펼친다.



그랜드오페라단 제52회 정기공연 창작오페라 시리즈II '로미오 VS 줄리엣'

일 시 |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2층) 2만원
 문 의 | 그랜드오페라단 853-2341



그랜드오페라단이 선보이는 뮤지컬보다 재미있는 창작오페라 '로미오 VS 줄리엣'.

'로미오 VS 줄리엣'은 이혼 위기에 놓인 오페라가수 부부가 '로미오와 줄리엣'에 동반 캐스팅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코믹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오페라가 낯선 관객들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간다.

- 예술감독/안지환 • 작곡/신동일
- 작, 작사/박준근 • 연출/김태웅
- 오페라코치, 피아노/최경아
- 소프라노/한경성, 박현진
- 테너/최보한, 권순태

서영희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이자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 앙상블 헤세드, 클레다 현악사중주원 멤버로 활동하며 탄탄하면서도 좋은 기교, 따뜻한 음악성으로 호평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서영희 독주회.

서영희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실기수석으로 졸업했으며, 졸업과 동시에 우수연주자들의 등용문인 신인음악회에 출연하는가 하면 MBC목요감상음악회 초청연주,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인 시리즈에 선정되어 무대에 선 바 있다.

- 프로그램**
 클라라 슈만/세 개의 로망스 작품 22
 로베르트 슈만/세 개의 로망스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등
 • 피아노/서영아

테너 이창원의 모노 음악드라마 마중

일 시 |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창원 414-5025



한국가곡의 대중화를 위해 제작된 성악가 최초 1인 음악극 '마중'.

현재 문화공작소 빈체로 대표이자 극작가 및 연출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테너 이창원의 '마중'은 우리나라 가곡을 중심으로 스토리와 캐릭터를 만들어

어 음악해설에 재미와 감동을 더한 특별한 무대이다.

이창원은 고신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오페라 '라보엠',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연극 '행복의 비밀', '주막', '수상한 형제', '리어왕', 뮤지컬 '레미제라블', '천로역정', '오페라 스타', '여우야', '페페의 꿈'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으며, 연극 '내 동생 무명이', '푸른 하늘 은하수', '영도 가는 길', 오페라 '사랑의 묘약', '라 트라비아타', '박쥐' 등 극작 및 연출가로도 활동해왔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미리보기 콘서트

일 시 |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국립오페라 초청 명품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공연에 앞서 오페라 감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미리보기 콘서트.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우리 귀에 익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줄리어드 음대의 소프라노 이선우, 로열오페라하우스 출신의 테너 김정훈,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2위에 빛나는 바리톤 김기훈 등 전 세계 주요 오페라극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오페라 가수들이 주역으로 참여하며, 금정문화회관 브런치 콘서트 해설자로 있는 음악평론가 조희창의 알기 쉬운 해설로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금정문화회관 송년콘서트 판

일 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VIP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금정문화회관이 올 한 해 코로나19로 지쳐있을 구민들에게 풍성한 연말을 선사하고자 마련한 송년 무대 '판'.

그동안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공연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소리꾼 장사익과 민요 장인 김영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우리 고유의 가락과 가요의 애잔한 정서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폭넓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장사익과 우리 노래의 길을 아름답게 들려주는 김영임의 히트곡들을 차례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지휘자 방성호가 이끄는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색소포니스트 김성훈의 특별무대로 보다 송년에 어울리는 풍성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제29회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Heal The World

일 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010-2772-7737



희망과 꿈을 노래하는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지난 1999년 7월 창단한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1년 6월 구립으로 승격, 20년간 해운대구의 문화사절단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송년에 어울리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권영기 • 반주/김민희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오페라합창유니언

수아트홀 기획공연 코로나 극복의 응원 'Dream Concert'

일 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수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수아트홀 744-1415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의 다문화가족 및 문화소의 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마련하는 수아트홀 기획공연. 누구나 음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음악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에델 현악사중주가 출연, 용기와 희망,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선사한다.



헤븐싱어즈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헤븐싱어즈 010-9264-0631

그동안 남성미 넘치는 파워 음성보이스와 감미로운 음색, 추억과 웃음을 전하는 품격 높은 퍼포먼스로 사랑받아온 헤븐싱어즈 정기연주회. 테너 홍지형, 바리톤 정승화, 베이스 권영기 등 부산의 대표적인 성악가 3명으로 구성된 헤븐싱어즈는 지난 2014년 창단 후 오페라, 가곡, 칸초네, 뮤지컬, 7080, POP & K-POP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프로그램

서툰 고백, 마중,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 뮤지컬 '이순신' 중 '나를 태워라', 섬집아가기 등



국립오페라단 명품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일 시 |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오페라단인 국립오페라단 초청으로 선보이는 명품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어리석은 인습과 신분격차 속에서 잃어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진실한 사랑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우리 귀에 익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휘자 김주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극을 이끌어가는 드라마틱한 연기를 선보일 비올레타 역에는 소프라노 김성은, 뜨겁게 사랑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알프레도 역은 테너 정의근, 배타적이고 냉정한 아버지 제르몽 역은 바리톤 박정민 등 대한민국 정상급 성악가들이 화려하면서도 완벽한 앙상블을 선사한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조희창의 클래식 레시피 댄싱 클래식 '클래식, 춤에 빠지다!'

일 시 |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제공)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금정문화회관이 짝수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2020년 마지막 무대. 월간 '객석' 기자, KBS 1TV '클래식 오디세이' 대표작가를 지낸 음악평론가 조희창의 해설과 스트링 아데스, 소프라노 신민원,

테너 전병호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댄싱 클래식'이라는 테마로 바로크 시대 헨델의 파사칼리아부터 근대에 유행한 왈츠와 탱고, 슬라브 무곡, 헝가리 무곡, 루마니아 무곡 등 다양한 춤의 세계를 선보인다.

- 해설/조희창
- 연주/스트링 아데스
- 소프라노/신민원
- 테너/전병호

세계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2020 창작가곡과 세계민요대전

일 시 |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세계음악연구회 010-2869-6780



다양한 창작가곡과 세계 민요로 마련되는 세계음악연구회 2020년 정기연주회.

저물어가는 2020년을 되돌아보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피아노/이혜진, 김신

정, 구화진, 안현아

- 소프라노/박성희, 이민희, 김주은
- 테너/서천환, 김정권
- 바리톤/최대우, 김기환, 유용준
- 베이스/박순기
- 작곡/이태현

제9회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청소년 합창단& 오케스트라 연주회

일 시 |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부산시전문단체 월드브리지그룹 010-3552-7315



지난 2011년 창단된 후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한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7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 소녀로 구성된 조이 주니어 합창단의 무대.

특히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 소외지역 대상 청소년들과 협력하며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상임지휘자로 있는 박성민의 지휘로, 매년 연말이면 전 세계 무대에 오르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들려준다.

윙프라우시스 기획 공연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빛

일 시 |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윙프라우시스 010-3308-3501



클래식 음악과 예술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하고 색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공연기획사 윙프라우시스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빛'.

클래식 음악과 함께 듣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빛'은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안데르센 동화 '성냥팔이 소녀', 오 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찰스 디킨즈의 걸작 '크리스마스 캐롤' 등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마음속에 빛나는 이야기 세 편을 에델현악사중주단과 후브라스콰이어의 연주로 들려준다.

특히 이번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글로벌아트홀 개관 15주년 기념 창작작품 페스티벌 & 음반 약보집 출간회 비파야 수금아

일 시 |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전석 5만원(합창곡집/관현악보집/독창곡집 택1 증정)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시편 전편 150편을 작곡하는 긴 여정에 나선 작곡가 신영순의 음반 및 약보집 출간을 겸한 무대로, 신영순이 지휘하는 글로벌 챔버 오케스트라와 Crescendo of GloVil Choir가 출연, 합창과 관현악의 축제를 펼친다.

2002 부산아시아엔터테인먼트 작곡가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곡가 신영순은 대한민국작곡가상, 동아콩쿠르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글로벌예술총감독, 국제문화대학교 교회음악대학 교수 및 학장으로 있다.

영도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헤븐싱어즈

일 시 |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헤븐싱어즈 010-9264-0631



지난 1999년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단된 순수 아마추어 청소년 관현악단인 영도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50여 명으로 구성된 영도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66차례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찾아가는 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 각종 축제 기념연주회 등 1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연주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홍지형, 바리톤 정승화, 베이스 권영기 등 부산의 대표적인 성악가 3명으로 구성된 헤븐싱어즈가 출연, 송년무대에 어울리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박성은 • 협연/헤븐 싱어즈

제10회 허회성의 가야금 크로스오버

일 시 |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허회성 010-8951-5002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및 동 대학원, 영남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주자 허회성의 무대. 허회성은 2009년 첫 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9차례 독주회를 가져왔으며 제1회 전국가야금대회(고령) 일반부 은상, 제15회 부산국악대전 기악부문 장원을 수상한 바 있다. 그동안 정악, 창작곡, 민속악, 산조 독주회 등 한 장르만을 집중적으로 연주해왔던 기존 무대와 달리 이번 무대에서는 정악 가야금으로 창작곡을, 25현 가야금으로 산조를, 12현 가야금으로 정악을 연주하는 등 각기 다른 장르의 가야금을 교차(crossover)해서 들려준다.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송년콘서트 '헤븐싱어즈'

일 시 |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테너 홍지형, 바리톤 정승화, 베이스 권영기 등 부산의 대표적인 성악가 3명으로 구성된 헤븐싱어즈가 마련하는 송년무대. 지난 2014년 창단한 헤븐싱어즈는 그동안 남성미 넘치는 파워 음성보이스와 감미로운 음색, 추억과 웃음을 전하는 품격 높은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송년의 아쉬움을 날리는 다양한 퍼포먼스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 피아노/전미리 • 퍼커션/이영훈
- 뮤지컬배우/신세봄



연극

연극 설록홈즈

일 시 | 11월 5일(목)-2021년 1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
(12/24 오후 4:00, 7:00, 12/25 오후 3:00, 6:00, 1/1 오후 3:30, 6:30,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영화, 소설,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조명되는 영국의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추리소설을 무대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연극 '설록홈즈'. 탄탄한 스토리에 치밀한 극본과 연출, 색깔이 분명한 캐릭터들과 배우들의 열연에 마치 사건현장에 있는 듯한 섬세한 무대가 더해져 재미를 더해준다.

로맨틱 코미디극 러브앤크츄얼리

일 시 | 11월 13일(금)-2021년 1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주)플레이더 부산 1600-0316



사랑에 대한 3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연극 '러브앤크츄얼리'. 잠들어있던 관객들의 연애세포를 깨워주는 이번 작품은 기다리는 시간도 설레는 따끈따끈한 애 100일차 커플부터 만 나면 투닥거리기 바쁜, 술술 권태기에 접어드는 1,000일차 커플, 가족인지 애인인지 헷갈리는 10년차 커플까지 세 커플의 리얼 로맨스를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하는 연인 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준다.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

일 시 | 11월 19일(목)-2021년 1월 17일(일)
평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5:00, 7:30, 일요일 오후 2:30, 5:00(12/24 오후 6:00, 8:00, 12/25 오후 2:00, 5:00, 12/31 오후 7:00, 1/1 오후 2:30, 5:00, 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애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청춘남녀의 짜릿한 연애 이야기 '연애하기 좋은 날'. 여자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자신하는 남자 지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여자 시연, 지후에 대해 남아있는 기억이라고는 좋지 않은 기억뿐인 시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후는 과거 연인시연의 이야기를 조작하기 시작한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호감으로 변하는 와중 시연은 잊혀졌던 이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무용

연극 **엄마, 다시 가을이 오면...**

일 시 | 12월 15일(화)-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오직 자식을 바라보며 세상을 버텨온 엄마,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딸, 철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묶여진 관계인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극 '엄마, 다시 가을이 오면...' 2020년 무대.

엄마는 잘 맞춰진 퍼즐처럼 세상에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딸에게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구질구질한 노년의 집착으로만 다가온다. 그런 엄마에게서 딸은 독립을 선언하지만 세상의 풍파를 맨몸으로 이겨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

- 작, 연출/전상배
- 출연/황미애, 이보라
- 작곡, 음악/전현미

2020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발레리나 김주원의
Ballet in love

일 시 |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발레리나 김주원의 해설이 있는 발레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2020년 마지막 무대.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15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켰던 김주원은 2006년 발레계 아카데미상인 '브누아 라 당스'에서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으며 세계적 발레리나로 이름을 알렸다. 김주원은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교수로 있으며, 뮤지컬 '펜담', 연극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라빠르트랑', 라디오 DJ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만남과 사랑,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영화음악과 발레로 만나는 무대이다.

제54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와이즈발레단 헨젤과 그레텔

일 시 |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12일 토요일 오후 3: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국내 최초 전막발레로 만나는 세계명작동화 '헨젤과 그레텔'.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를 거쳐 미국 보스턴발레단, 스위스 취리히발레단,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스페인 국립무용단 등 세계 정상급 발레리나로 활동해온 김세연이 안무를 맡고 현재 (재)마포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와이즈발레단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그림형제의 원작동화에 발레의 아름다움을 더해 창작발레로 탄생시킨 무대로, 동화의 판타지를 살리는 오감만족 무대로 작품의 재미를 더한다.

- 안무, 연출/김세연

신은주무용단 **波瀾 파란II**

일 시 |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3만원(사전 예매 시 50% 할인)
 문 의 | 신은주무용단 626-3037, 010-6775-8867



한국 고유의 춤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전통의 재해석과 새로운 춤 이미지 창조를 통한 한국 창작무용의 활성화를 비전으로 활동해온 신은주무용단의 창작무대.

신은주무용단은 그동안 국내외 예술가를 연계하여 협업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극장 기획 공연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 예술인과 지역민들과의 춤예술을 통한 소통과 연계에 힘써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공간이자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항구도시 부산, 그리고 '잃어버린 순수에 대한 향수'를 주제로, 자연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삶을 새로운 춤 언어로 이야기한다.

콘서트

2020-21 백지영 전국투어 콘서트
BAEK HUG

일 시 | 12월 5일 토요일 오후 2:00, 7: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14만3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9만9천원
 문 의 | (주)밝은누리 1566-9621

2020 거미 전국투어 콘서트
다시, Winter Ballad

일 시 |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2:00, 7: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주)밝은누리 1566-9621

메리크리스마스!
육중완밴드 콘서트

일 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석 4만원, R석 3만원, B석(2층)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행사

12월 오페라바움 영상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12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시리즈' 콘서트 실황을, 금요일에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Big3 공연 실황을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

섭의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 4일(금) 2006년 로얄오페라
- 11일(금) 2015년 베를린 국립오페라
- 18일(금) 2016년 라스칼라
- 25일(금) 크리스마스 특선 푸치니 '라보엠'

12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00,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00(12/18~1/3 휴관)
시네바움
 입장료 | 수강료 1만5천원
 (문자예약, 윤산의 논어아카데미, 목요일의 브런치는 무료)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1일(화), 8일(화), 15일(화) 오전 11:00 윤산의 논어 아카데미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1일(화) 오후 7:00 김해룡의 셰익스피어 <햄릿>: '무덤 파는 광대'(Grave-digger)의 인류를 향한 애도(哀悼)
 • 강사/김해룡(전 한일장신대 교수)
 2일(수) 오전 11:00 갤러리 데이트 Cine Baum & DATE Artist Talk:아티스트, 김미경의 'Stratums 겹, 층'
 3일(목) 오전 11:00 동남아시아를 조망하다 '인니, 말레이시아, 필리핀'
 • 강사/우주호(동남아시아연구소 소장)
 7일(월) 오후 7:00 재즈를 탐하다 '퓨전에서 프리로: 다시 이별의 시간은 오고'

• 강사/이기녕(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8일(화) 오후 7:00 가요와 팝의 흐름을 찾아가는 박기철 교수의 토크 콘서트
 • 강사/박기철(경성대학교 교수)
 10일(목) 오전 11:00 영화 속 화학이야기 '영화, 마션(The Martian)'
 • 강사/박찬영(공학박사,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14일(월) 오후 7:00 심진호의 예술기행_영화 속



영감의 장소: '코니 아일랜드'를 통해 본 영미 문화
 • 강사/심진호(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교수)
 17일(목) 오전 11:00 시네필과 함께하는 시네토크 '인디영화, 파스카'
 • 강사, 진행/시네필·진선현 임병호

제158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콘서트 송년 주제 시낭송회

일 시 |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화회
 010-6367-0149

영광도서 주최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영광도서 문화홀 1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정두환 011-574-0423



 2020 제21회 부산문화대상을 수상한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 음악감상회로, 12월부터는 서면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1일(752회) 구원(救援)과 구도(求道)의 음악_비발디 이야기

8일(753회) 평균(平均)과 균형(均衡)의 음악_바하 이야기
 15일(754회) 평등(平等)과 자유(自由)의 음악_베토벤 이야기
 22일(755회) 이달의 책임가 '레너드 번스타인: 정치와 음악 사이에서 길을 잃다'(배리 셀즈 지음, 함규진 옮김, 심산)
 29일(756회) 2020년 송년음악회

김옥균의 힐링클래식명곡여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 3개월 15만원
 문 의 | 롯데백화점문화센터 부산본점
 810-2351-2,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공연실황 영상감상회.

프로그램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전막 감상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 & 제3번
 차이콥스키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나그네', 브람스 '헝가리춤 곡 1, 5, 6번'
 바로크음악특집 '베니스음악여행'
 베토벤 '합창교향곡'

전시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빌 비올라, 조우

일 시 | 10월 21일(수)-2021년 4월 4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실실, 이우환공간 1층 제3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0-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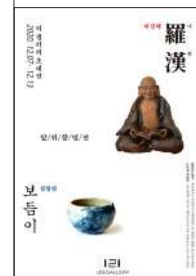


이우환 작가와 맥락을 함께하며 미술사 중심에 있는 작가들을 초청, 부산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에서 소개하는 2019 연례 기획 프로젝트 '이우환과 그 친구들' 두 번째 작가전 '빌 비올라, 조우'.

이우환 작가와 국제적 명성을 함께하며, 현대미술의 중심에 있는 비디오 아티스트 빌 비올라의 이번 전시에서는 '관계향'이라는 공통 키워드로 빌 비올라의 1970년대 초기 주오작 부터 최근의 대규모 설치 작업까지 총 16점이 선보인다.

리 갤러리 초대전 앞뒤끝밀전 - 허경혜 '나한羅漢', 심영란 '보듬이'

일 시 | 12월 7일(월)-12월 13일(일) 리 갤러리
 문 의 | 리 갤러리 816-9500



 흙으로 빚은 나한(羅漢: 수행의 경지가 높아 번뇌가 소멸된 이를 가리킴)과 보듬이(찰그릇을 우리말로 지어부르는 이름)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

지난 10월 영광도서에 새롭게 탄생한 문화공간 리 갤러리 초대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앞뒤끝밀전'이라는 타이틀로, 허경혜의 '나한전'과 심영란의 '보듬이전'이 함께 펼쳐진다.

부산시립예술단 2021년 시즌 프로그램 확정

- 수준 높은 작품부터 어린이를 위한 즐거운 무대까지
- 부산시민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다양한 무대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10

저물어가는 2020년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이 2021년 시즌 프로그램을 확정짓고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 중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하여 합창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립예술단은 부산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산시민과 만났다. 2021년에도 부산시립예술단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무대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예정이다.

우선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는 2021년 ‘균형(balance)’과 ‘정돈(clearance)’이라는 모토로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 다양한 나라의 레퍼토리를 통해 교향악단만의 차별화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 라벨의 관현악곡 열 두 작품을 완주하는 ‘모리스 라벨 관현악곡 전곡 사이클’은 2021년에 이어 2022년까지 계속 이어간다. 부산시립합창단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아! 나의 조국’을 통해 잊혀져서는 안 될 과거의 소중한 역사를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부산에서 자주 만날 수 없는 현대합창 명곡으로 새로운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2021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Comfort(위로), Peace(평안), Thanksgiving(감사), Love(사랑)’를 주제로 한 힐링콘서트와 그 시대 음악을 재현하는 정격(원전)연주로 들려주는 헨델의 ‘메시아’도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2021년 한국춤의 명품화와 브랜드화를 위한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에 나선다. 두 차례 정기공연을 통해 ‘부산의 춤 명품화를 위한 시리즈 공연’으로 첫선을 보이는 ‘본색’과 춤극 ‘동백, 부부’를 선보인다.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동백, 부부’는 기존 시대극

이나 재현의 무용극이 아닌 보다 진화된 새로운 형식의 춤극으로 독창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국악 곡의 창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산국악관현악단은 2021년 부산을 주제로 한 10곡의 위촉곡을 선보인다. 특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지난 30년간 위촉한 국악관현악 작품 중 음악적 완성도가 뛰어나면서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작품을 선곡,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이 재창작을 통해 새로운 명품으로 재탄생시킨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무대를 선보인다. 부산시립극단은 2021년 한 해 현대사회에서 그 소중함과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가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본다. ‘가족’을 주제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과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어린이 음악극 ‘미운 오리새끼’ 등 온가족이 함께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레퍼토리를 들려주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 5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창작합창곡을 선사한다. 특히 부산시립예술단은 2021년 부산시민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열리는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은 극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6개 예술단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무대로, 매년 연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산시립예술단만의 브랜드공연으로 탄생될 예정이다. 또, 2021년부터는 예술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어린 관객을 위한 예술교육을 시작하며, 어린이·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감상 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 공연도 펼친다. 부산시립예술단의 숨은 스타를 찾아 무대를 마련하는 스타프로젝트 ‘스타를 만나다’도 2021년 새롭게 기획된 특별한 프로그램이며, 이밖에 온라인 공연을 강화, 유튜브 채널 ‘부산시립예술단TV’에서도 예술단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2020 로비음악회 성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로비음악회가 지난 11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졌다.

특히 이번 로비음악회는 매년 대극장 로비에서 개최되던 음악회를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중극장으로 공연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이날 로비음악회에서는 변원탄 회장을 비롯해 후원회원 및 가족 70여 명과 이용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부산문화회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립합창단(지휘 이기선)이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 발족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회장 변원탄)는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활동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써오는 한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 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찾아가는 음악회’



(재)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하는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찾아가는 음악회’가 12월 24일 까지 부산시내 10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열린다.

오페라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찾아가는 음악회’는 오페라는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청소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된 새로운 형식의 오페라 공연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오페라 아리아에 스토리텔링을 접목시켜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소프라노 김민성, 테너 우원석, 서치환, 바리톤 장진웅, 안세범, 김기환 등이 출연하며, 공주는 잠 못 이루고(투란도트),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카르멘),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잔니스키키), 축배의 노래(라 트라비아타), 여자의 마음(리골레토) 등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일정	12월 7일(월) 10:30 구포초등학교	12월 9일(수) 14:00 만덕고등학교
	12월 10일(목) 15:00 초읍중학교	12월 18일(금) 13:20 대신고등학교
	12월 21일(월) 13:00 덕포여자중학교	12월 24일(목) 11:00 연일중학교

12월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형 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12월에도 펼쳐진다.

12월 8일 부산시립합창단의 부산지방경찰청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학교,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일정	12월 8일(화) 14:30 부산지방경찰청_합창단
	12월 9일(수) 10:50 만덕고등학교_합창단
	12월 21일(월) 10:00 부산혜원학교 강당_교향악단
	12월 21일(월) 11:30 부산명학교 강당_교향악단
	12월 21일(월) 10:00, 14:00 연제구노인복지관 강당_교향악단

극장장의 손편지 ②

예술경영자의 예술 이야기 ②

점점 더 가치를 따지는 예술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예술경영자의 예술 이야기 두 번째는 '점점 더 가치를 따지는 예술'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예술에 대한 지원은 원래 지원자의 예술적 취향과 자선(philanthropy)적 차원에서 이른바 수월성(excellence)을 기준으로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오늘날은 양상이 매우 다르지요. 물론 어떤 지원이라도 그 밑바탕에 예술의 상대적 우수성에 우선권을 두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디만, 거기에 덧붙여 다른 가치들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뚜렷한 징조는 아마도 1979년 영국에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종전까지는 영국이 우수한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다른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을 해왔지만, 여기에 다른 가치를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효율성, 또는 수익성 같은 것인데요. 말하자면 관객의 수라든가 자체 수입 등을 늘려 효율성을 높이면서 공공 지원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와 다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요구가 오늘날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교육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입니다. 더불어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적 지원도 자선의 목적에서 점점 어떤 목적성을 띠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상품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 종업원의 사기진작에도 보탬이 되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목적을 가진 기업 측면에서의 예술 지원을 우리는 통틀어 '문화 마케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술의 경제적 가치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영화 <주라기 공원>이 현대자동차의 1년 수출액과 맞먹는 수입을 올린 것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다가 IMF 시기 김대중 정부 일각에서 '예술에도 경제논리'를 강조하면서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대치 정부 시기의 경제적 위기 상황과 같은 분위기에서 나온 논리였지요. 물론 이 논리는 예술의 경제적 유발효과 측면에서 좋은 사례를 낳기도 했지만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대표 문화상품'의 개발이 붐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가령 역사적 인물이나 관광명소 등을 소재로 하여 대형 창작오페라나 뮤지컬을 만드는 경우도 그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누구누구의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대대적인 시민 혈세를 들여 제작을 하고 몇 번 공연을 하고는 그 뒤로 감감 무소식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술의 교육적 가치는 그 연원을 따져보기에 제 실력으로는 쉽지 않지만 오래 전부터, 어쩌면 경제적 가치를 말하기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술을 통해서 즉, 예술이 말하는 방식과 내용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판단력과 사고력, 나아가 창의력을 길러주기도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면 인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겠죠. 예술을 가까이 하



는 학생들은 성적도 높다는 사례는 지난 손편지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말할 때는 보통 개인과 집단의 정신적 치유, 세대 간의 이해, 사회적 갈등 해소, 공동체 정신의 고양 등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아가 도시 재생이나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거론될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코로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시대 즉, 모든 것이 두렵고 단절감에 빠지기 쉬운 시대에 뭔가 위로와 연대, 통합의 가치를 높여 줄 기제로서 예술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술이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자아내는 원천은 무엇일까요? 예술이 어떤 힘을 가졌길래 그런 파생가치를 만들어 내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원천을 '예술의 본질적 가치'라 부른다면 그것은 예술을 접하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 위안, 감수성이나 지적 능력의 발달 같은 것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술이 가진 본질적 가치나 다른 가치들을 딱 잘라서 이건 이쪽이고 저건 저쪽이다 하는 식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다른 가치라 하는 것도 이런 본질적 가치에 의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질적 가치를 가진 예술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간파하고 활용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밑바탕 없이 경제적 가치, 교육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 때는 자칫 예술의 본질을 훼손하고 예술가를 소모시키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예술의 가치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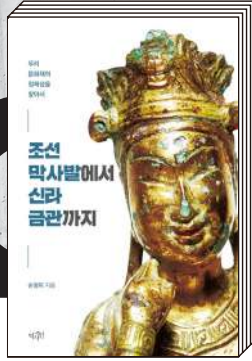




김쌤은 출장 중 2(국문판)

김지석 지음 / 호밀밭 / 268p
1만 3천 500원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직접 참가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 영화 발상지인 부산을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기획되어 1996년 처음 선보였다. 2020년, 제25회에 이르면서 아시아 최대 국제영화제가 된 부산국제영화제 탄생과 출발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1995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 창설을 준비한 이들은 김동호, 이용관, 박광수, 전양준, 오석근, 그리고 고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겸 수석 프로그래머였다. '김지석'이라는 이름은 영화제 팬들의 가슴에 특히 기억된다. '김쌤'은 영화제를 위해 헌신했던 그에게 붙여진 신뢰와 애정의 명칭이다. 김지석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 프로그래머,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겸 수석 프로그래머로 활동했다. 최고의 아시아 영화 전문가였고, 모든 아시아 영화인들의 친구이자 때로는 선생님이 되어주었던 김쌤을 다시 만나보는 책이다. 아시아 영화의 폭넓고 세밀한 역사적 증언, 지금의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든 수많은 만남에 관한 기록이다.



조선 막사발에서 신라 금관까지

손정미 지음 / 역사인 / 260p
1만 6천 200원

언론인 출신의 소설가 손정미 씨가 일제강점기와 현재 시점까지 국보급 문화재를 둘러싸고 벌어진 비화를 들려준다. 저자는 문화재에 깃든 우리 역사를 알고 나면 우리 문화에 대한 시각이 깊어지고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다. 부여 부소산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반가사유상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 이 유물이 발견됐을 때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지낸 고향수영 박사, 문화재위원을 지낸 고 정영호 교수, 고대 불상 전문가인 고 구노 다케시 박사 등 한국과 일본의 불상 전문가들이 진짜임을 주장했는데 문화재 당국은 가짜 판정을 내렸다. 문화재가 아니면 해외로 반출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 이후 이 유물은 사라져버렸다. 일제에 의한 도굴 비화도 들려준다. 고려 공민왕릉에 매장된 금은보화가 많다고 알려지자 일제는 1905년 비가 쏟아지는 한밤중에 군대를 동원해 폭약으로 왕릉 뒤의 호석을 폭파하고 무덤으로 침입했다. 일본군대는 왕릉의 부장품을 모두 강탈해서 10여 대의 수레에 가득 싣고 달아났다. 석굴암을 통째로 일본으로 실어가려 했던 계획도 세웠다. 우리 문화재에 얽힌 비사를 읽는 동안 역사와 문화재를 함께 알 수 있다.



지독한 끌림

정봉채 사진, 글 / 다빈치 / 240p
2만 2천 500원

20여 년간 우포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정봉채 작가의 사진에세이. 우포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 유아면, 대합면에 걸쳐 있는 늪지성 호수이다. 왜가리, 고니 등의 조류와 가시연꽃, 마름 등 총 342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1998년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됐다. 정봉채 작가는 전자공학과를 나와 엔지니어로 일했고 1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했지만 사진에의 갈망으로 전업 사진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2000년부터 우포의 사진을 찍어왔다. 지금은 우포를 가까운 곳에 벽돌 하나하나까지 손수 지어올린 갤러리 옆에 살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포를 지켜보고 있다. 2008년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세계 람사르 총회의 공식 사진작가로 선정되어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렸다. 지금까지 낸 책들도 사진집 <우포늪—나의 렌즈에 비친 자연늪의 세계>, <우포—지독한 끌림>, <우포바라기>, 사진에세이 <우포의 편지>, <내 마음의 섬> 등 우포에 관한 사진과 글이다. 이번에 낸 책은 우포라는 공간의 면면과, 작가가 우포의 본질 깊숙이 들어가 체험한 늪의 시간을 보여준다. 억겁의 세월을 품은 늪의 매혹, 그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끌림을 은밀히 엿보게끔 해주는 사진과 글을 함께 엮었다. 우포의 다채로운 매력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와 함께하는 제2회 창작대본 공모전



공모개요 COLLUSION SUMMARY

- ✓ **공모목적**
 - 부산 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제작지원 및 제작기회 제공
 - (재)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의 공공지원 사업 확대
- ✓ **공모부문**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3개 부문
- ✓ **신청자격**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
※ 나이지역·분량 제한 없음, 부산 관련 창작대본에 한함
- ✓ **유의사항** ※ 공고일 현재 아래 해당 시 신청할 수 없음
 -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지면에 발표된 작품
 - 공연된 작품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쇼케이스는 미발표 작품으로 간주
 - 타 지원사업 선정 작품
※ 신청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심사위원회에서 발표된 공연으로 간주하는 작품
- ✓ **최종선정 대상 작품은 (재)부산문화회관과 계약체결 후 제작 지원가능**
※ 계약 시 필요서류 제출

수상내용 AWARD CONTENT

- ✓ **창작음악극(국악음악극 포함), 희곡, 무용극 등 부문별 수상(총 3명)**
 - ※ 수상자에게는 상금(각 700만 원), 트로피 수여
 - ※ 수상작 중 1편을 선정, 제작지원 (회관 사정에 따라 1편 이상 제작 예정)
 - ※ 해당분야 선정작 없을 시 해당자 없음으로 공지 가능

심사방법 SCREEN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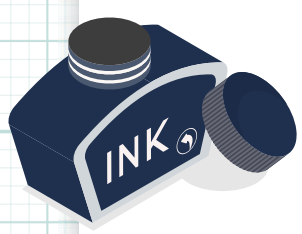
- ✓ **심사위원회**를 통한 창작극 대본 심사(분야별)

신청방법 APPLY

- ✓ **공고기간** : 2020. 6. 24.(수)~12. 15.(화)
- ✓ **접수기간** : 2020. 10. 20.(화)~12. 15.(화)(57일간)
- ✓ **접수방법** : 이메일(mlee78@bscc.or.kr) 접수
※ 3일 이내 접수확신메일 미수신 시 반드시 확인필요
-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해당대본, 기타보완자료 (CD/DVD, 악보 또는 음원파일, 추가자료 등 필요시 제출)
※ 저작권 관련 계약서(선정작에 한해 필요시 제출)

문의 QUESTION

-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607-6121)**



부산시립예술단
Program 2021

—
부산시립예술단의 2021년 특별한 선물
부산시립예술단이 부산시민의 일상으로 찾아갑니다!



01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 출연 인원 200여 명!! 부산시립 예술단 브랜드공연 탄생 예고
- 인종과 종교, 국적을 떠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 극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6개 예술단이 선보이는 대형무대



02

**부산시립예술단의
스타를 만나다**

-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숨은 스타를 알리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
- 2021년 새롭게 선보이는 스타프로젝트, 그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03

**유튜브
부산시립예술단TV를 통한
온라인 공연 강화**

-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 지난 공연 다시 보기 명품무대를 유튜브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4

**미래관객들을 위한
부산시립예술단의
예술교육공연**

-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감상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 공연이 펼쳐집니다.



부산시립예술단 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57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4(목)~1.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이경숙&김규연



제572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러

문화 | 대극장 2.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이병욱



제573회 정기연주회 선후배

문화 | 중극장 3.1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첼로 정재윤 | 바이올린 김덕우



제574회 정기연주회 슈트라우스 어게인!!!

시민 | 대극장 4.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임윤찬 |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제575회 정기연주회 여정

문화 | 대극장 4.30(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바이올린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



제576회 정기연주회 열정

시민 | 대극장 5.2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클라리넷 김한



제577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식 뉘앙스

문화 | 대극장 7.1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아드리안 페뤼송



제578회 정기연주회 합창

문화 | 대극장 9.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박은주 |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중 | 베이스 장세종 |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

시민 | 대극장 10.14(목)~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조진주



제580회 정기연주회 모차이콥

문화 | 대극장 1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피아노 김대진



제581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문화 | 대극장 11.2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홍민수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문화 | 중극장 12.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최희연 |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부산시립교향악단_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1.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제76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시민 | 대극장 2.18(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3.10(수)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I

시민 | 대극장 4.1(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

문화 | 챔버홀 4.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

문화 | 중극장 5.7(금) 9: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V

시민 | 대극장 5.25(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I

문화 | 챔버홀 7.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문화 | 대극장 8.10(화) 3:30pm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8.27(금) 9:00p.m
All Seats 10,000원



제77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9.30(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

시민 | 대극장 10.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III

문화 | 챔버홀 10.21(목)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11(목)~12(금) 11:00a.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III

문화 | 중극장 12.3(금) 9: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I

문화 | 중극장 12.14(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립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82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아! 나의 조국!'

문화 | 대극장 5.13(목) ~14(금) 7:30p.m
시놉시스, 작곡 이진실 | 지휘 이기선



제183회 정기연주회
위로의 메시지

문화 | 대극장 6.24(목) 7:30p.m
지휘 이기선 | 바리톤 이광근 |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제184회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의 밤 III

문화 | 대극장 10.7(목) 7:30p.m
지휘 이기선



제185회 정기연주회
**정격연주기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시민 | 대극장 12.9(목) 7:30p.m
지휘 이기선 | 반주 카메라타안티파(고음악 전문 연주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강혜정 | 알토 양송미 | 테너 조성환 | 베이스 박흥우



부산시립합창단_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1
새날을 꿈꾸며

문화 | 대극장 3.4(목) 7:30p.m
객원지휘 이상길



가요합창음악회
2021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7.22(목) 7:30p.m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10.25(월)~28(목) 7:30p.m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외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2
Healing for you

문화 | 대극장 11.9(화) 7:30p.m
객원지휘 이수은



부산시립무용단_정기공연

제83회 정기공연
한국춤 명품 컬렉션 '본색'

문화 | 대극장 5.27(목)~28(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제84회 정기공연
출극 '동백, 부부'

문화 | 대극장 11.18(목)~19(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정기연주회

제209회 정기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대극장 3.18(목) 7:30p.m
지휘 김종욱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문화 | 중극장 6.10(목) 7:30p.m
집박 김수일



제211회 정기연주회
국악칸타타

문화 | 대극장 9.8(수)~9(목) 7:30p.m
지휘 김종욱 | 작곡 김은혜



제212회 정기연주회
명인·명창·명기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1(목) 7:30p.m
지휘 김종욱
판소리 박성희, 정선희 | 태평소 김경수
가야금 송영남, 하지희



제213회 정기연주회
2021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8(화) 7:30p.m
지휘 김종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특별연주회

2021 신년음악회
신춘다례연(新春茶禮宴)

문화 | 대극장 2.3(수) 7:30p.m
지휘 김정수 | 행다시연 (사)한국차인연합회 부산지원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4.22(목)~23(금) 7:30p.m
지휘 김정수, 김종욱
해금 서은영, 안은경, 김준희, 윤해승
가야금 광수은, 오해향, 윤경선, 최미란



스타 프로젝트
두개의 바람 二風異流

문화 | 중극장 7.8(목) 7:30p.m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11(수) 7:30p.m
지휘 김종욱
노래 박성희 | 태평소 김상연 | 가야금 김혜진



제4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11.24(수) 7:30p.m



부산시립극단_정기공연

제69회 정기공연

문화 | 중극장 4.9(금)~11(일) 시간미정
※ '가족에게, 가족으로부터'를 콘셉트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객원연출가의 무대



제70회 정기공연
벚꽃 동산

문화 | 중극장 7.1(목)~3(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 객원연출 강성우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및 제71회 정기공연
찰스 디킨즈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12.23(목)~24(금) 7:30p.m
원작 찰스 디킨즈 | 각색/작사/연출 김지용
지휘 이기선 | 안무 이정운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출연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극단_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8월 중(시간, 장소 미정)
원작 제임스 매튜 베리 | 대본, 작사 강보람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안데르센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9.28(화)~10.15(금)
※시간 미정
원작 안데르센 |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65회 정기연주회
화려한 전성기, CLIMAX

문화 | 대극장 3.19(금) 7:30p.m
전석 2천원
지휘 이명근 | 협연 피아노



제66회 정기연주회
노련함, VETERAN

문화 | 대극장 9.24(금) 7:30p.m
전석 2천원
지휘 이명근



제67회 정기연주회 및 2021년 송년음악회
겨울...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12.2(목) 7:30p.m
전석 2천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특별연주회

2021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중극장 5.21(금) 7:30p.m
전석 2천원
지휘 이명근



2021 렉처콘서트

문화 | 대극장 8.12(목) 7:30p.m
전석 2천원
지휘 이명근



청소년 실내악의 밤

문화 | 챔버홀 10.23(토)~24(일) 5:00p.m
전석 2천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59회 정기연주회
날으는 양탄자

문화 | 대극장 5.29(토) 5:00p.m
전석 2천원
지휘 김수현



제160회 정기연주회
부산에 부는 바람

문화 | 대극장 9.11(토) 5:00p.m
전석 2천원
지휘 김수현



제161회 정기연주회
Merry Christmas in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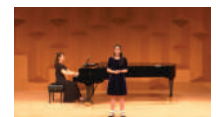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12.17(금) 7:30p.m
전석 2천원
지휘 김수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특별연주회

향상음악회

문화 | 챔버홀 2.19(금)~20(토) 7:30p.m
무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11.5(금)~6(토) 7:30p.m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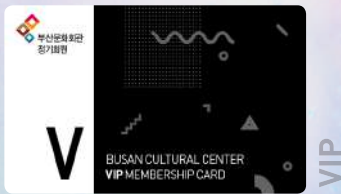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116~7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회원카드 발급신청서
 회원카드 발급신청서
 회원카드 발급신청서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와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원(50매)	300만원(30매)	100만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지 <예술의 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의 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0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4월 24일(금), 5월 29일(금), 7월 31일(금),
8월 28일(금), 10월 30일(금), 12월 8일(화)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김준수, 두번째달 '팔도유람' 취소

3월 25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컨템포러리 국악 그룹 '블랙스트링' 취소

4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취소

5월 23(토)-24일(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연극 '여자만세 2' 종료

5월 28일(목) 오후 3:00,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종료

5월 30일(토), 6월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가족극 '우리는 친구다' 종료

7월 3일(금) 오전 10:00, 4일(토)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3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연극 '어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종료

8월 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7월 31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 종료

7월 25일(토)-26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5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챔버페스티벌' 종료

8월 15일(토)-29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회당 선착순 20매)
※ 8월 29일 공연 제외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종료

8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S석 20매)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최우수작

'토장군을 찾아라' 취소

9월 3일(목)-4일(금) 10:30, 13:30, 5일(토) 11:00, 1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R석 100매)

연극 '결혼'(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취소

9월 18일(금) 오후 7:30, 19일(토)-20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S석 20매)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콘서트 취소

9월 24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연극 '십이야(十二夜)' 취소

9월 26일(토)-27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6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내셔널 투어 취소

10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VIP석 40매)

안은미 컴퍼니 'A-드래곤' 잠정연기

12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2020 제아음악회

12월 31일(목)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빈소년합창단 2021 신년음악회 취소

2021년 1월 2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종료

2021년 2월 21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 1인 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607-6116)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학교 총장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박성복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승모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신명희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상현 리더스금융판매 워드컨설팅 대표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현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성임 엘가 대표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정일 SK증권(주) 이사
임은자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영희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충영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진경옥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허 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현임숙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대극장 좌석 네이밍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1회 무료 (연간)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2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김홍재(010-3560-2511)

부산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객원연출 모집

부산시립극단 2021년 시즌 주제인 '가족에게', '가족으로부터'를 담아낼 수 있는 제69회 정기공연의 객원연출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연개요

- 가. 공연명칭 : 부산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 나. 공연주제 : <가족에게> 혹은 <가족으로부터>
- 다. 공연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라. 공연일정 : 2021년 4월 9일(금) ~ 11(일) 평일 19:30, 주말 17:00(3회)
- 마. 연습시작 : 2021년 2월 1일(월) ~
- 바. 주최/주관/제작 :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부산시립극단
- 사. 작품 : '가족'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기존 희곡 및 창작희곡의 작품
※ 남자 4명 이상, 여자 5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할 것

모집개요

- 가. 모집인원 : 연출 1명
- 나. 응시자격 : 아래의 자격기준 2개를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① 연극 연출 유경험자, ② 연출 작품 목록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최근 5년간 연출한 작품 필수)
- 다. 대본제출일 : 2020년 12월 23일(수) 17:00까지
※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연출료 및 작가료는 추후 협의

지원서 접수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년 11월 10일(화)~12월 8일(화) 17:00까지
- 나. 심사발표 : 2020년 12월 17일(목)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다. 제출서류 : ① 객원연출 지원서, ② 연출 이력서, ③ 작품 제안서
- 라. 접수방법
 - ①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게시판 참조
※ 증빙자료는 지원서 접수 시 사진 및 파일로 우선 제출, 필요시 원본 제출
 - ②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첨부(본인 확인용)
 - ③ 작성 후 0308side@bscc.or.kr로 이메일 제출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마. 제출형식 : 지원서 메일 제목은 '객원연출지원서_본인이름'으로 작성
(예: 객원연출지원서_홍길동)
- 바.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선발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부산시립극단 ☎ 051-607-3123 / 3125

2021년 부산시립예술단 비상임 예능단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이끌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부산시립예술단 비상임 예능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채용분야	인원	모집부문	임용일	비고
교향악단	10명	바이올린2, 더블베이스1, 플루트1(피콜로 겸함), 오보에1(잉글리시호른 겸함), 클라리넷1, 바순1, 호른1, 튜바, 타악기	2021.1.4.자	위촉일로 부터 11개월 근무
국악관현악단	5명	피리1(태평소 겸함), 해금1, 아쟁1, 타악1(개량양금 겸함), 신디사이저1	2021.2.1.자	
합창단	5명	소프라노2, 알토2, 테너1		
무용단	4명	무용수		
극단	10명	배우		

※ 채용조건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정, 단체협약 등에 따름

전형방법

(1차)실기전형 / (2차)면접전형 ※ 세부일정, 장소 및 과제곡은 홈페이지 별도공고

- 실기전형 : 단체별 과제곡 평가를 통한 실기 심사
- 면접전형 : 실기전형 합격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한 적격여부 심사

전형일정

- (교향)2020년 12월 中 / (국악, 합창, 무용, 극단)2021년 1월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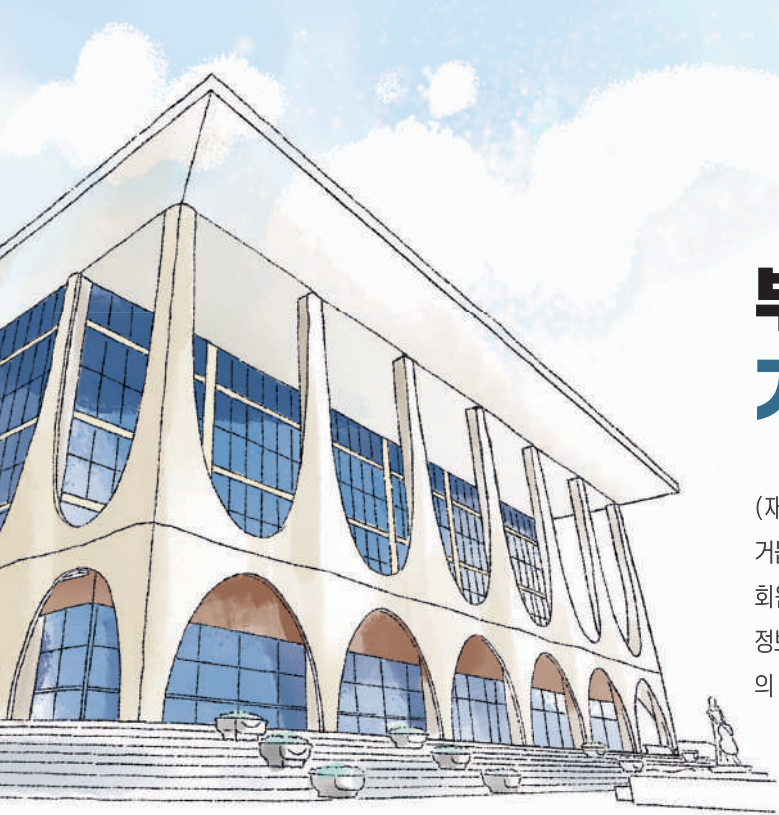
접수방법

- 부산문화회관 인터넷 채용사이트(<https://bscc.saramin.co.kr>) 접수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항목별 채용사이트 입력
- 증빙서류 : 실기전형 통과 시 면접전형 당일 제출
 - ①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된 것)
 - ②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 ③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
 - ④ 각종 증빙자료 및 첨부자료 등

※ 본 내용은 안내문으로 정확한 공고는 차후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모집분야 및
전형일정 등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컬러 **플러스** 하게
 문화를 파워 **로**

부산문화회관 **플러스회원** 가입 캠페인 EVENT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가입기간

2020년 7월 1일(수) ~ 12월 31일(목)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당첨자 발표

2021년 1월 중, 당첨자 개별공지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 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 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 원 상당)
선물4	100명	신세계 상품권(2만 원/모바일)
선물5	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모바일)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 SMS/이메일 수신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동의는 필수입니다.

□ 정보제공 활용 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 정보 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플러스회원 가입신청서**



이 름

아 이 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 메 일

주 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이 발송됩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OO-YEOL CHOI, ARTISTIC DIRECTOR



부산시향의

BPO Night Lab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20. 12.9 WED 9:00 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거리두기 좌석제)

Medium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정수란 · 탈춤

Sooran Jeong · Masked Dance

아르놀트 쇤베르크 · 정화된 밤

Arnold Schönberg · Verklärte Nacht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이민형 Min Hyung Lee, Conductor

작곡 정수란 Sooran Jeong, Compo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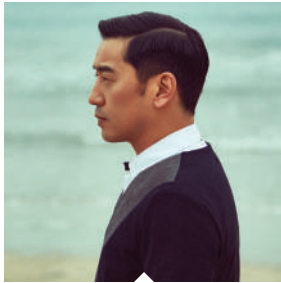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116~7(정기회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4.24^{Fri}

나의 기타 이야기
기타리스트 드니성호



5.29^{Fri}

동요, 클래식이 되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7.31^{Fri}

바이올린 로망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8.28^{Fri}

드라마틱 플루트
플루티스트 필립윤트



10.30^{Fri}

베토벤, 영웅이 되다
피아니스트 홍민수



12.8^{Tue}

오페라, 재즈가 되다
바리톤 이응광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오전 11시 전석 10,000원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051-607-6000) 협찬 SHINSEGAE 선착순 이벤트 음료와 빵을 무료로 드립니다.

마티네 패키지 안내 마티네콘서트 6편 동시 구매시 30% 할인 | 4편 이상 동시 구매시 20% 할인 | 3편 이상 동시 구매시 10% 할인

부산MBC와 부산시향의
함께하는
베토벤 플러스
BEETHOVEN PLUS IV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20. **12.18** FRI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in E flat major “Emperor”, Op.73

아이브스 · 대답없는 질문
Ives · The Unanswered Question

슈트라우스 · “죽음과 정화”
Strauss · “Tod und Verklärung”, Op.24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피아노 김태형 Tae-Hyung Kim, Piano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MBC 협찬  부산은행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116~7(정기회원)



부산시립합창단 제181회 정기연주회
BUSAN METROPOLITAN CHORUS



2020

송년

HEALING CONCERT

2020.12.17 (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 이기선



소프라노 / 오신영



기타리스트 / 김경태



피아노 / 하순원

PROGRAM

- E.그리그-페르귄트 조곡 1번 中 아침
- W.A.모차르트-밤의 여왕 아리아
- J.로드리고-아랑후에스 기타 협주곡 2악장
- G.거슈윈-랩소디 인 블루
-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곡
- 크리스마스 페스티발

주최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 균일 10,000원

예매 / www.bscc.or.kr

문의 / 051-607-6000

할인 / 50% 등록장애인, 다자녀가구, 임산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학생(초/중/고/대)

3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예술인패스소지자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PROGRAM

J. Adams
short ride in a fast machine(질주 속에서의 짧은 탑승)

A. Copland
appalachian spring(애팔래치아의 봄)

F. Lehár
Dein ist mein ganzes Herz(당신은 내 마음의 모든 것)

F. Wildhorn
This is the moment(지금 이 순간)

C. Gounod
Je Veux Vivre(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F. Loewe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밤새도록 춤을 출 수 있다면)

G. Bizet
Chanson Du Torador(투우사의 노래)

R. Rogers
You will never walk alone(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L. Bernstein
Tonight(오늘 밤)

G. Verdi
Brindisi(축배의 노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송년음악회
제64회 정기연주회

TRAVEL

여행



수석지휘자 이명근



소프라노 이정은



테너 황병남



바리톤 신홍규

2020.12.22(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www.bscc.or.kr 입장료 균일 2,000원 공연문의 051-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8회 정기연주회

庚子年

송년음악회

2020.12.23(수)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김정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작곡 이정면



작곡 김성경



작곡 박영란



작곡 이정호



가야금 고연정



메조소프라노 정은영



소리 정선희



소리 정효선

사회 백규진

Memorial songs / 작곡 이정면

소프라노가 부르는 신가악해 넘어가기전 한참은, 새벽
/ 메조소프라노 정은영, 편·작곡 김성경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파사칼리아]

/ 가야금 고연정, 작곡 박영란

국악전문단체 '타로'

- 수궁가와 뱃노래를 위한 '새울림' / 소리 박성희, 작곡 백규진
모듬북&퍼커션 Taro, 피리·태평소 김경수, 대금·소금 손한별
가야금 하지희, 드럼 최권호, 베이스 이재훈, 신디 차민영

- 모듬북 합주 'New wave'

최정욱, 권두술, 이현서, 이충인, 이창효, 하이햇 전정현

합창과 진도씻김굿, 국악관현악을 위한 [진혼]

/ 소리 정선희·정효선,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작곡 이정호



국악전문단체 '타로'




부산시립합창단

주 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1층 R석 10,000원 | 2층 S석 5,000원

문의 051-607-60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셔틀버스 운행(무료) · 대연역 출발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 :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운영), 공연후 1회운영

2020
BUSAN OPERA HOUSE
OPERA GALA CONCERT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2020 / 12 / 10^{THU} PM / 7 : 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김봉미
소프라노	박은주 김유진 정혜민 왕수정
테너	조윤환 허동권 이태흠
바리톤	이광근 안세범
베이스	구본수
사회	정희정

UKO오케스트라
부산오페라합창단

COUPON



20% Discount

안경나라(동래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만원 선불카드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무호롭데이**



2020. 5. 29 - 12. 25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총 7회)** 오후 7시
부산시민회관 | 입장료 | 전석 무료(단,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051)607-6000(ARS1번)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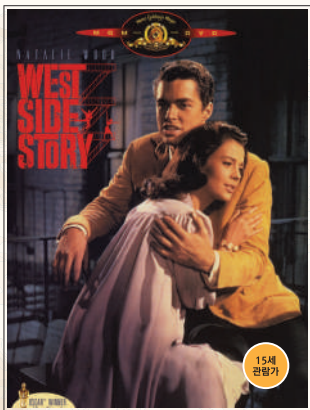
- * 각 상영 날짜가 상이하오니 장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7월은 상영일정 없음)
- * 영화별 입장연령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장연령 불일치 시 입장불가)
- * 상영권 입장은 상영시간 기준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단, 연회실의 경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50명 입장 가능)

<상영일정표>



헬부르의 우산

5. 29(금)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6. 26(금)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캣츠

8. 28(금)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레 미제라블

9. 25(금)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오페라의 유령

10. 30(금)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미스 사이공

11. 27(금) 부산시민회관 연회실



맘마미아

12. 25(금) 부산시민회관 연회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0. 12.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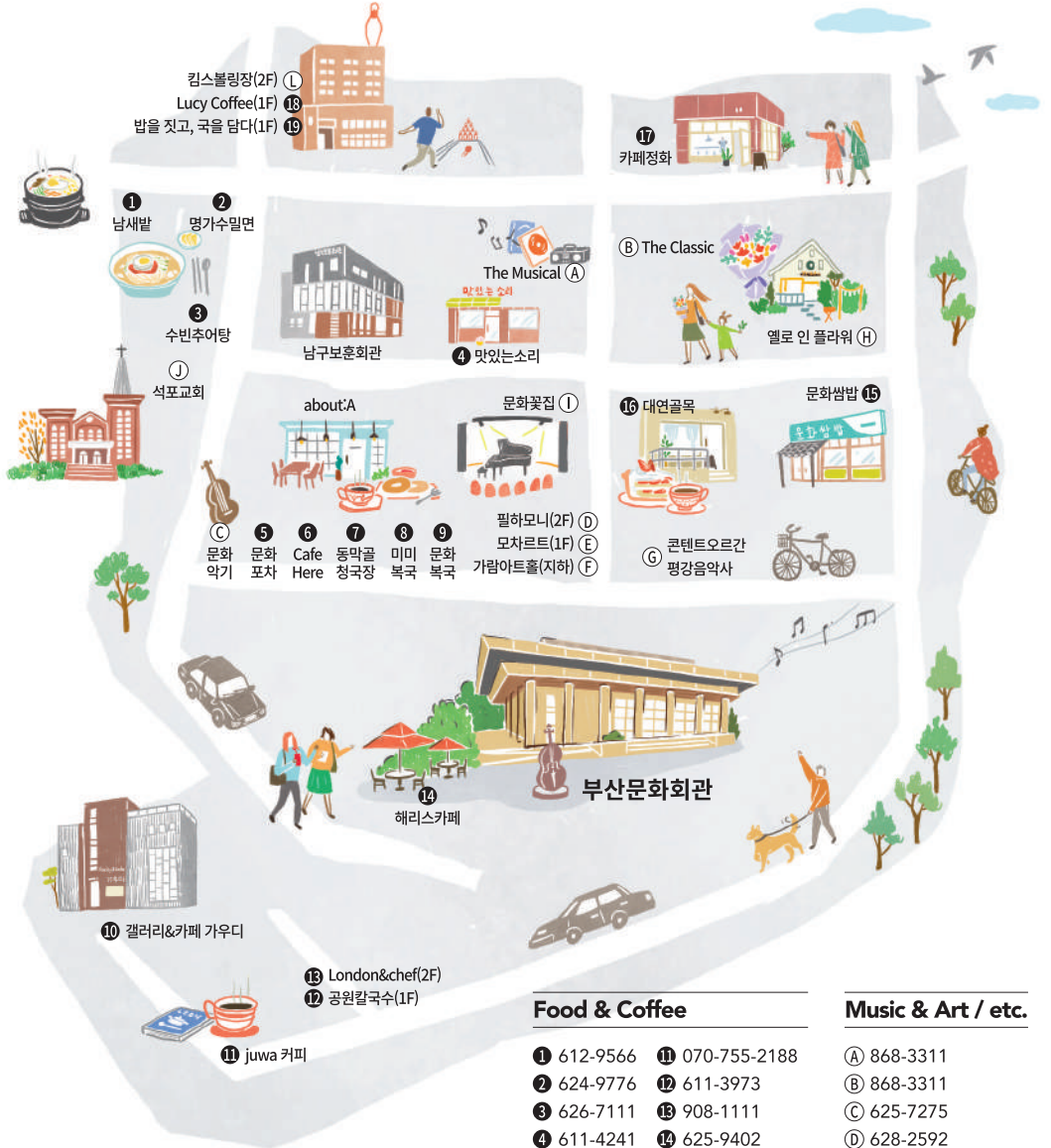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1 612-9566
- 2 624-9776
- 3 626-7111
- 4 611-4241
- 5 626-4448
- 6 622-7412
- 7 611-3589
- 8 628-8009
- 9 621-7040
- 10 621-5788
- 11 070-755-2188
- 12 611-3973
- 13 908-1111
- 14 625-9402
- 15 626-2292
- 16 010-3996-6498
- 17 623-0772
- 18 628-3832
- 19 714-3559

Music & Art / etc.

- A 868-3311
- B 868-3311
- C 625-7275
- D 628-2592
- F 622-1456
- G 621-6669
- H 626-7900
- I 080-337-3370
- J 622-9722
- L 625-8704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타 센터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안경나라(동래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108번길 5
051)505-8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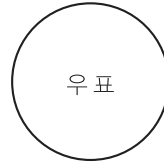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INVITATION TO THE ARTS
2020
12
DECEMB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OO-YEOL CHOI, ARTISTIC DIRECTOR

라벨 관현악곡 전곡 사이클 II (2020-2022)
The Maurice Ravel Cycle II-Complete Orchestral Works

제571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2021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21. **1.14** THU / **15**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로시니 •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Rossini • Overture to “Il barbiere di Siviglia”

모차르트 •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Mozart • Concerto for Two Pianos No.10

라벨 • 랩소디 에스파놀
Ravel • Rapsodie espagnole

라벨 • 볼레로
Ravel • Boléro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피아노 이경숙 Kyung-Sook Lee, Piano
김규연 Kyu Yeon Kim, Piano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116-7(정기회원)